

꿈꾸는 자들이 모여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곳, 강남.
 강남에서 미래를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강남러에게
 강남은 어떤 곳일까?

LIVE 강남

리브강남

강남의 매력을 꼽아달라고 하면 하나의 수식어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르고, 화려하지만 느리고, 소박한 모습을 가진 곳이 강남입니다.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가진 강남은 동네마다 공간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LIVE 강남』은 빠르게 변화되는 일상 속에서 생동감 있는 강남, 살아 있는 강남을 담고자 했습니다. 걸출기식의 상업화된 관광 소개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그곳에서 살아 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이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과거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문화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부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강남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365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선사합니다. 이 책은 강남의 명소들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깃든 공간, 강남 사람들이 추천하는 맛집과 카페까지 담았습니다.

『LIVE 강남』은 강남을 처음 찾는 이에겐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강남이 익숙한 이에겐은 새로운 강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오직 강남에서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남 여행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CHAPTER 1

강 남 을 읽 다

_____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미래를 그리는 강남

LIE SANGBONG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20
밍글스 강민구 오너 셰프	24
컴퍼니더업 정근혜 대표	28
조이댄스아카데미 재아 댄서	32

꿈이 모이는 강남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최지강 Country Manager	38
배우 고정경	42
국악예술인 이재우	46
e-Commerce 기업 인재경영본부 홍민주 직장인	50

_____ 디지로그 강남

디지털 강남	56
아날로그 강남	58

_____ T.O.P 강남

TEST BED	64
OPEN	72
PLAY	76

CHAPTER 2

강 남 에 다 가 가 다

_____ 강남의 축제에 다가가다

음악에 몸을 맡기는 시간	86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봤어	88
오늘은 강남에서 이거 할래?	90

_____ 강남의 예술, 문화에 다가가다

일상처럼 예술 작품과 만나다	94
오감이 즐거운 공연 예술	102
쉽이 있는 거리, 심이 있는 시간	106

CHAPTER 3

강남을 큐레이션 하다

Space GN _____ 강남의 공간

문화도 소비하는 시대	114
책 한 장의 여유	122
강남의 건축학개론	126
아이와 함께	132
한옥의 미를 만나다	136

Brand GN _____ 강남의 브랜드

브랜드를 경험하다	140
브랜드의 가치	146

Contents GN _____ 강남의 콘텐츠

여기가 거기인가요? G-콘텐츠의 성지	152
변화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154

Tasty GN _____ 강남의 맛

일상의 틈, 일상의 심 한잔	160
달콤한 강남 디저트 로드	166
매봉역 카페거리에서의 시간	174
여유로운 하루의 시작, 브런치	180
한국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맛!	186
별들의 전쟁, 미쉐린 레스토랑	190
과거를 물어보세요, 오래가게	192
햄버거도 비건이 되나요? 채식 음식점	194
강남의 밤을 마시다	198

CHAPTER

1

강남을 읽다

“강남은 강남입니다” 다원성과 포용성을 지닌 강남. 강남을 어느 하나의 수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 그렇다고 수식어가 안 붙는 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수식어가 붙더라도 잘 어울리는 곳이 강남이다. 역사, 사람, 문화, 예술, 공간 등 어느 범주에서도 답습이 아닌 정체성이 담긴 다양하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강남.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강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어보자.



강남에서
꿈을꾸는
사람들



수전서점



현재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54만이 넘는 꿈이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고 바뀌는 곳이 강남이다. 하루하루가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세상 속에서 강남은 꿈을 만들어 가고 키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녹아 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다. 기회의 땅, 꿈을 꿀 수 있는 도시 강남에서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래를 그리는 강남

새롭게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강남의 미래도 함께 그려가는 사람들.
강남은 그들이 있기에 과거가 있고,
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이렇듯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오면서 새롭게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강남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들을
만나보자.

강남은 그들이 있기에 과거가 있고,
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LIE SANGBONG

이상봉 LIE SANGBONG



정근혜 김버니더엄



강민구 임글스



제이 조이먼스아카데미



LIE SANGBONG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

강남도 이제 도시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강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브랜드화가 되었어요. 젊음의 도시이자, 도전과 꿈이 매일 펼쳐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 또한 패션에서 강남이 우뚝 설 수 있게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새롭고, 색다른 패션쇼를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1975년 패션 디자이너로 첫 입문해 국제 패션디자인연구원을 거쳐 1985년 제 이름을 딴 'LIE SANGBONG' 브랜드를 론칭한 뒤 지금까지 패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입니다. 국내 디자이너 중 서울과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컬렉션 쇼를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많게는 1년에 16번, 한 달에 4번 쇼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하나의 영역에 갇혀 있기보다는 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님을 생각하면 한글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이 제 디자인하면 한글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한글은 저의 예술적 여정에 불을 붙였고,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글과 함께 단청, 창살, 무궁화와 같은 한국의 유산과 문화 요소를 제 작품에 접목하게 되었죠. 한글은 제 운명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명함이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점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점자를 명함에 새겨 넣은 후 20년이 넘도록 명함 디자인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학생들과 티셔츠에 점자를 새겨 넣는 특강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제게 점자책을 읽어줬는데 그때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점자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는 그 아이들이 선각자고 제가 바보였죠. 그 이후로 점자가 새겨진 명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까지요. 다문화 꿈도링스쿨도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부모의 국적은 다르지만, 패션과 모델이라는 우리들만의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IE SANGBONG

- ☞ 도산대로 451
- ☎ 02-544-1201
- 🌐 liesangbong.com
- 📧 @230_selectshop

패션하면 떠오르는 해외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도시들과 비교해 강남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전과 꿈이 어느 도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까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왔어요.

강남도 이제 도시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강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브랜드화가 되었어요. 젊음의 도시이자, 도전과 꿈이 매일 펼쳐진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어요. 패션쇼와 페스티벌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강남이 글로벌화되어야 서울이 글로벌화되고, 서울이 글로벌화되어야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강남이죠.

저 또한 패션에서 강남이 우뚝 설 수 있게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새롭고, 색다른 패션쇼를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해보고 싶거나 꿈꾸는 패션쇼가 있을까요?

다양한 시도를 강남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천이 흐르는 거리에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공연도 보고, 패션쇼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시도를 해보고 싶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는 패션쇼는 강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사람이 강남 패션쇼 하나를 보기 위해 올 수 있는 그런 패션쇼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직위원장도 맡으시고, 강남 패션 페스티벌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K-콘텐츠를 처음 알린 건 영화였고, 두 번째가 드라마였어요. 그다음에 케이팝이었는데 저는 케이팝 다음에 K-패션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뷰티가 먼저 오더라고요. 패션이 조금 뒤로 가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패션의 중요성도 조금 더 깊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리시는 꿈이 있을까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인의 꿈을 한곳에 모은 대형 설계 작품을 광화문에 건 적이 있어요. 그때 국내외를 돌며 사람들의 꿈이 적힌 천을 제가 받았어요. 그 모은 작은 천을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으로 물들이고서 가로 30m, 세로 50m 크기의 통천에 붙여 한글로 `꿈`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꿈이라는 거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후에 꿈토크스쿨을 하면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건 죽기 전까지 계속 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년이 와도 노년에 해야 할 일들, 내일을 생각한다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라는 바람 자체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매일, 새로 생각하고 바뀌는 것 같아요.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주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밍글스 강민구 오너 셰프

●●

강남의 아름다움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밍글스에서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밍글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식을 알게 되고, 한국을 알게 되고, 또 이것으로 새로운 꿈을 누군가가 꾸게 된다면 더 좋겠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한식의 근원을 존중하되,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과 감성을 덧입힌 새로운 한국의 맛을 선보이는 밍글스의 오너 셰프 강민구입니다. 2014년에 밍글스를 처음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강남에 자리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밍글스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다양한 손님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을 가장 먼저 고려했어요. 그렇다 보니 더 다양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내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의 이러한 장점이 새로운 한식을 선보이는 밍글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강남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문을 연 이후 강남의 변화를 지켜봐 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떤 점이 그대로인 것 같나요?

예전에도 지금도 트렌디한 지역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10년 전 밍글스를 오픈했을 때보다 거리에서, 업장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또 그들의 국적 또한 더 다양해진 것으로 보아 그사이에 이 지역이 훨씬 글로벌화 되었음을 느낍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남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과 관련해 전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다른 도시를 둘러봐도 강남만큼 트렌드가 빠르게 반영되고 또 활동하기 편리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저는 강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 파인다이닝 밍글스, 캐주얼 유로피언 다이닝 페스타 바이 민구, 홍콩에 새로 문을 연 한식 레스토랑 한식구까지

밍글스

- [A] 도산대로67길 19 2층
- [T] 02-515-7306
- [H] 화-토 12:00-22:00
(브레이크타임 15:00-18:00, 일-월요일 휴무)
- [U] restaurant-mingles.com
- [I] @mingles_restaurant





©밍글스



©밍글스



©밍글스

오픈하는 곳마다 미쉐린 선택을 받았습니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한식의 전통과 근원은 존중하되 오늘날의 기술과 감성을 덧입혀 밍글스만의 새로운 한식을 선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밍글스의 모토입니다.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그와 더불어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밍글스에서 출신, 성별, 인종, 나이를 떠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들었습니다. 밍글스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나요?

밍글스를 처음 열 때 목표로 했던 것은 한식에 익숙한 내국인에게는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고, 동시에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움 속에서 익숙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었습니다. 밍글스라는 뜻도 서로 다른 것끼리 조화롭게 어우르다는 의미처럼 한식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식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하고, 한식의 발전 가능성을 느끼고 그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음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 한식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밉글스는 음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밉글스의 공간을 보면 유리창이 많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창을 많이 냈죠. 잔, 그릇, 젓가락, 손가락 같은 식기는 물론 의자와 테이블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사용해요.

강남의 아름다움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밉글스에서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밉글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식을 알게 되고, 한국을 알게 되고, 또 이것으로 새로운 꿈을 누군가가 꾸게 된다면 더 좋겠죠.

한식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홍콩에도 진출했습니다. 언젠가 미식의 도시 파리까지도 진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목표, 꿈이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답한 것과 같이 한식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음식을 알리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저의 목표는 한식을 더 많이 알리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밉글스만의 시선으로 한식의 본질과 정체성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밉글스만의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 한식의 세계화에 함께 뻗어 나가고 싶습니다.

컴퍼니더업 정근혜 대표

●●

많은 스타트업이 강남에 모여요. 제가 주로 머무는 테헤란로 일대는 사실 실리콘밸리를 본 따 테헤란밸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여러 스타트업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죠.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20년 동안 상품기획자로 커리어를 쌓은 뒤, 현재는 작은 창업가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정근혜입니다. 제가 이끄는 스타트업은 “컴퍼니 The UP”이라는 이름으로 효과적인 가격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컨설팅 회사예요. UP은 Untapped Potential을 뜻하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러나 아직 제대로 펼쳐지 못한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큰 꿈을 담고 있죠. 동시에 국내 대표 창업 기관인 디캡프의 상임 멘토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 전략 수립과 매력적인 상품 기획 전략 수립을 통해 이익을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예요.

글로벌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새롭게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는 독일계 패션 회사인 아디다스에서 오래 일을 했죠. 20년 동안 아디다스의 상품을 기획하고,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일을 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아디다스의 성장과 함께 저 역시 같이 성장해온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커리어의 2막은 타인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갖고 오랜 울타리를 떠나게 되었지요. 퇴사한 이후에 제 전문성을 살려서 초기 기업을 만나 그들의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가격 전략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세상에 펼쳐 보이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보니 저 역시 단순히 제 지식을 전수해주는 것에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꿈이 생기더라구요. 그렇게 가격 전략 전문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펼치는 한 명의 창업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창업 꿈나무들을 열심히 응원하다가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어 저역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된 셈이죠. 다른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 창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컨설팅하신 기업 중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기업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기억에 남지요. 제가 주로 컨설팅하는 기업은 정말 극 초창기 기업이에요. 극 초창기 기업들이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무작정 부딪히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컴퍼니더업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했던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고객의 수가 2배로 늘기도 하고, 짧은 시간의 컨설팅만으로도 상당한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리기도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다들 큰 의지를 갖고 따라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최근에 컨설팅한 기업 중 커피 전문 브랜드 ‘히즈빈스’는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인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멋진 기업이죠.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기업과 함께 하며 성장을 도울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가 강남 근처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 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지요. 직주근접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스타트업이 강남에 모여요. 제가 주로 머무는 테헤란로 일대는 사실 실리콘밸리를 본따 테헤란밸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여러 스타트업들이 집약적으로 모입니다. 제가 상주하고 있는 디캠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올해로 벌써 1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만큼 많은 스타트업들이 곳을 거쳐 갔죠.





서울에는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홍대합정 등등이요. 그 곳들과 강남이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강남권에 자주 모이는 스타트업들은 최첨단을 달리는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창업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옷을 만들어 파는 것도 창업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창업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는 사업도 역시 창업이죠. 강남권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유난히 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 트렌드가 앞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시너지가 가득한 곳이지요.

한창 꿈을 그려나가는 창업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지요.

트렌디하고 합한 기술이나 ‘업’만 쫓기 보다는, 오직 창업가 본인만이 지닌 ‘나의 본질’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해답은 ‘나의 고객’을 뵈도록 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테라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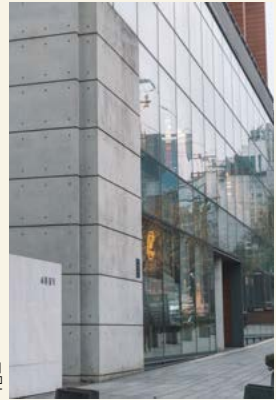
**정근혜 대표가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선릉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는 디캠프를 추천합니다. 디캠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허브 같은 곳인데요. 이 공간에 들어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열정 가득한 젊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때때로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 대신 힐링이 필요할 때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선정릉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사시사철 바뀌는 환상적인 뷰를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 하다 보면 에너지도 다시금 차오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디캠프
A 선릉로 551 새롬빌딩 2층

포럼 디



조이댄스아카데미 재아 댄서

••

저는 댄서의 직업을 표본으로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수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양한 K-pop 전문 레슨과 백업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윤재아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강남에서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강남에 댄서분들이 많나요?

강남에서 수업하기 전에 여러 지역에서 레슨을 해왔었어요. 강남을 오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레슨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을 많이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강남에는 댄스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연습실도 정말 많아 댄서들도 많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대 구분 없이 댄스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몸치분들도 많이 배우시나요?

춤을 처음 추시는 분, 배운 적 없으신 분, 또한 요즘 TV에서 방영한

조이댄스아카데미

☞ 봉은사로37길 20 1F, B2

☎ 02-545-0998

🌐 joydance.kr

📱 @joydancemusic_seoul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스트리트 맨 파이터를 통해 남녀노소 나이, 성별 상관없이 춤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춤을 처음 추시는 분들도 학원에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댄서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릴 때 꿈이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춤과 노래 학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둘 중 하나라도 파야겠다는 마음으로 춤 학원을 먼저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후 댄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댄서라는 직업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서 방송 백업 댄서 활동도 같이하셨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큰 행복감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원래 아이돌의 꿈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줬죠.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춤을 열심히 배우다가 저에게 일을 추천해 주신 이후로 다양한 백업 댄서 활동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댄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돌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댄서도 멋있는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도 무대에서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백업 댄서 활동도 하면서 현재는 키즈, K-pop, 외국인 레슨 등 다양한 레슨도 같이 병행하면서 댄서의 직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 활동이 있으신가요?

BTS 지민 님의 타이틀곡 ‘Like Crazy’와 수록곡 ‘Set Me Free’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의 솔로 첫 타이틀곡의 댄서로 참여하게 되어 관심이 커 책임감과 함께 이 활동을 통해 저에 대한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K-pop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아닌 세계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한국문화원 호주연합으로 호주 K-pop 워크숍에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K-pop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아닌 세계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나이가 든 분들까지 많이 와주셨는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K-pop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사랑해 준다는 걸 느꼈죠.

재아 님의 최종 목표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목표, 꿈이 궁금합니다.

저는 댄서의 직업을 표본으로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수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습니다.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기회와 행복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이자,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남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활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이 중심권이라 그런지 외국인들도 정말 많고, 맛집이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곳, 유명 브랜드숍들이 많아 놀기에도 적합한 곳이 강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맛집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여행 온다면 강남을 제일 먼저 와 볼 것 같습니다. 댄스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강남으로 많이 배우러 오셔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강남이 매력적인 곳이지 않을까요.

재아 댄서가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가로수길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너무 뻥할 수 있지만 가장 뻥한 곳이 가장 매력적이니 많은 사람이 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로수길에는 구경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댄스를 좋아하신다면 취미로도 편하게 춤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조이댄스아카데미에 오신다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A] 영동대로 513

가로수길

[A] 신사동 일대

삼성역 사거리



가로수길



꿈이 모이는 강남

꿈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항상 듣던 말이 ‘너는 꿈이 어떻게 되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며, 꿈이라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전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강남으로 모이고 있다. 꿈꾸는 자, 그 꿈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그들의 내일을 들여다보자.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며,
꿈이라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최지강 라퍼, 서울 클럽하우스



홍민주 신인 직장인



이재우 목아예돌인



안지영 평강역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최지강 Country Manager

••

처음 자전거를 타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즐거움이 더 증폭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를 거점으로 안장 위에서 매주 다양한 라이드를 진행하며, 더욱 즐겁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아무래도 일과 병행하기가 K-직장 인에겐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라파 서울이 강남에 자리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클럽하우스는 모든 사이클리스트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클럽하우스는 많은 RCC(Rapha Cycling Club)회원들과 수많은 라이더가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곳이지요. 매장이 아니라 클럽하우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서울의 지도를 펼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에서 오기에도 좋고, 반대로 클럽하우스에서 출발해 어느 곳으로 라이드를 떠나기에도 좋습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강남, 특히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가로수길은 매력적인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멋진 취향을 가진 분들이 보석 같은 클럽하우스를 발굴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파코리아 지사장 최지강입니다. 자전거가 좋아서 강남에 라파 지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찐 자덕(자전거 덕후)’입니다. 자전거가 좋아 하나하나 부품을 모아 스스로 조립도 하고 잘 포장된 도로뿐만 아니라 휴길, 산길도 마다 하지 않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데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 압구정로10길 35-1

☎ 02-515-2758

☒ 평일 11:00-20:00,

주말 10:00-19:00

☞ rapha.cc/kr/ko

자덕(자전거 덕후)의 성지라고 불리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라파의 사명은 사이클링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남녀노소 자전거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즐거움이 더 증폭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를 거점으로 안장 위에서 매우 다양한 라이드를 진행하며, 더욱 즐겁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대 그랜드투어 중 하나인 투르 드 프랑스 대회 기간에는 함께 모여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모든 멋진 경험을 클럽하우스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클링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전거

의 매력을 함께 공감하는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률적이던 사이클링의 모습을 바꾸고 범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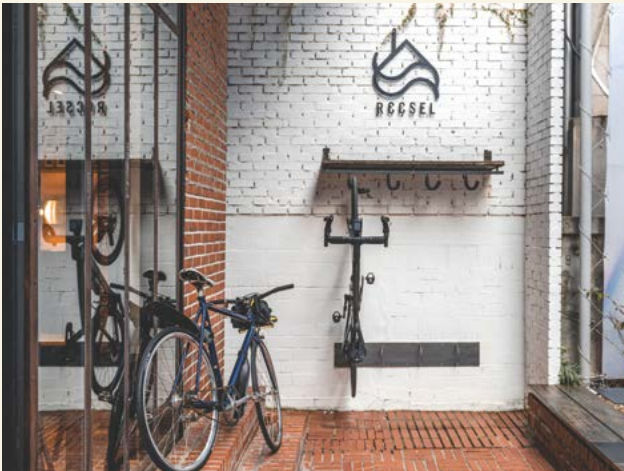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나요?

전 세계 각지의 RCC 회원들이 22개의 클럽하우스가 있는 도시를 여행하며 여기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를 찾습니다. 서울은 사이클리스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강을 따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는 전 세계 사이클리스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라이드 코스입니다. 또 RCC회원의 혜택 중 하나인 자전거 대여나 현지 사이클리스트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라이드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전 세계 클럽하우스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판매되는 도시별 한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이클리스트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행 선물 중 하

나죠.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에 간혹 클럽하우스를 찾으시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시지만 가로수길의 묘미를 대변해 주듯 골목 골목 볼거리가 풍부하여 많은 여행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강남에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가 생겼을 때와 지금 문화의 차이가 있나요?

처음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가 가로수길에 생겼을 당시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쫄쫄이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가로수길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 아직도 흔한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만, 현재는 라파 뿐만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자전거 브랜드들의 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와 함께 자전거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자전거와 다양한 사이클링 의류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을 지나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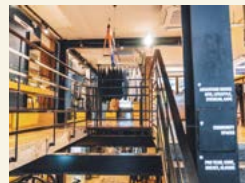
**라이딩하기 좋은 강남 스포츠 소
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길의 수많은 플래그십 스토어 사이 매력적인 자전거 관련 스토어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나서는 탄천과 양재천을 통해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따라 내달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양재천 카페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 적절한 거리를 라이드 한 후 멈춰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면 다시 페달을 밟을 힘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 친구, 때로

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탐방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해외에서도 라이딩을 하실텐데 해외와 다른 강남의 매력이 있을까요?

전 세계 메가시티 중에서 이토록 잘 정비된 도로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은 도시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특히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진 탄천, 양재천을 통해 강남 모든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떤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지요. 또 자전거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따릉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해외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볼 순 있지만, 서울처럼 내외국인이 간편하게 빌리고 간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잘 정비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역동적인 강남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안장 위에서 강남을 달리면서 더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안위만(안장 위에서 만나요!)

최지강 Country Manager가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역동적인 강남의 새로운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도시 속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봉은사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선정릉을 추천 드려요.

또한 구룡산을 포함해 매봉산, 대모산도 자리 잡고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들도 추천드려요.

봉은사

☎ 봉은사로 531
☎ 02-3218-4800

선정릉

☎ 선릉로100길 1
☎ 02-568-1291
☎ 화-일 06:30-17:30 (월요일 휴무)

배우 고정경

●●

어찌 되었든 강남은 문화예술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깐요. 물론 오디션이 전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것도 다른 지역과 강남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남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은 조금 더 트렌디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끈다고 할까요.



압구정 롯데오 일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넷플릭스 <킹덤>에서 좀비
역할을 맡으셨죠? 이렇게 보니
너무 신기해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고정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킹덤>에서 좀비 역할을 맡아 열심히 뛰어다녔었죠. <킹덤>은 제가 처음으로 출연했던 작품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몸을 적극적으로 쓰는 액션 연기도 이어가고 있고, 영상 작업 외에 연극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가 되신 거예요?

저는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원래 산업경영공학 전공이랍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연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연예술학과를 복수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죠. 처음엔 아직 배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연기에 깊이가 생기고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이렇게



디어달리아도산플래그십스토어

계속 준비를 하다가 도전하고 싶은 작품 공고가 나면 지원서를 제출해 연락이 오면 오디션을 보는 거죠. 이야기 하고 보니 취업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킹덤> 공고를 봤고, 제가 워낙 좀비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몸을 쓰는 것도 좋아해서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넷플릭스에서 좀비로 분장하는 과정에 대한 메이크 오버 영상을 따로 제작했는데 제가

거기에 출연하게 되면서 얼굴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그렇군요. 그럼 오디션은 강남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강남에서 많이 이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기자들이 강남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은평구에 살고 있지만 강남에 수시로 온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진짜 살고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되었든 강남은 문화예술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깐요. 물론 오디션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것도 다른 지역과 강남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남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은 조금 더 트렌디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끈다고 할까요. 최근에는 VR을 이용한 연극이 상연되기도 했어요.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지요.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많은 배우들이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온전히 홀로 설 수는 없거든요. 결국 누군가 불러줘야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또한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우들은 연기라는 꿈을 버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가 너무 즐겁고, 이걸 계속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기를 놓지 않는 배우요. 저는 정말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연기가 너무 즐거워요. 그 안에서 계속 성취감도 느끼고요.

영화 같은 영상 작업 쪽에서는 제가 몸을 쓰는 데 강점이 있는 편이니까 활동적인 액션이나 스릴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연극에서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루는 작품들을 만나고 싶고요. 연기를 잘 하려면 역시 주변을 잘 관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주변을 관찰하려고 해요. 연기를 하기 전이었으면 그냥 지나쳐갔을 법한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유심히 지켜보려고 하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삶을 계속 관찰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르뱅몰즈



도산공원

**배우 고정경이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저는 도산공원이요. 강남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압구정동, 삼성동 쪽에 있는
르뱅룰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커리에요. 진짜 맛있어요.

르뱅룰즈

- 📍 선릉로 660 브라운스톤 레전드 1층 105호
- ☎ 0507-1389-1270
- 🕒 매일 09:30-20:30
- 📱 @levain_rules



도산공원



르뱅룰즈

국악예술인 이재우

●●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는 집 근처 양재천을 천천히 산책해요. 양재천은 집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양재천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가고, 그냥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많이 갑니다. 양재천은 갈 때마다 새롭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부는 격투기 선수 이재우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있어요. 개포동에 있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대금을 시작하게 되어 쪽 대금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취미이자 두 번째 직업으로 격투기 선수를 지망하고 있어요.

대금과 격투기라니 신기한 조합이에요. 우선 국악 예술을 하리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검도 선수였어요. 검도를 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피아노를 하면서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 보니, 피아노 선생님께서 음악을

계속하고 싶으면 국악중학교에 진학해 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국악중학교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오며 가며 많이 봤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별 뜻 없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찌 되었든 저는 국악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입학해서 지망하는 악기를 적어야 했는데, 그때 대금을 1지망으로 적었던 거죠. 국악은 사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계속하면



대금

대한민국의 전통 관악기로 저, 저대라고도 부른다. 굵고 긴 대나무에 구멍을 뚫은 뒤 옆으로 불어 구슬프고 신비로운 소리를 낸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을 살펴보면 최소한 신라 시대부터 널리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국악중학교 · 고등학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중고등학교는 국립 예술계 특수목적 학교이다. 1955년 4월 1일 6년 과정인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무용, 판소리, 정가, 민요, 아쟁, 타악 총 11개 전공을 운영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국악이론과 국악작곡 전공을 더해 13개 전공을 운영한다. 출신 인물로는 이하늬, 서현진, 한에리, 전현주 등 유명 배우와 연예인 등이 있다.

☐ 개포로 22길 65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할수록 그 매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껏 쪽 대금을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주회도 마쳤고요.

음악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음악을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해 감정 표현을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폭넓게 많이 들으려고 해요. 거의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감정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요.

대금을 연주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대금을 연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금을 연주하는 자세 자체가 사실 편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자세가 편하지 않다 보니 오래 연주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격투기를 취미 이상으로 프로까지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격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었는데, 음악을 시작하면서 안 하다 보니 몸이 근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다시 해볼까 찾아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격투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입식 타격’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하면 할수록 그 나름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저는 뭔가 한번

꽃히면 끝까지 쪽 밀고 나가보는 성격이거든요.

평소 쉬실 때는 어떻게 쉬시나요?

저는 쉬 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조금 뻘한 대담일까요.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사이에 맛집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먹고 싶은 것을 제때 못 먹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쉬 수 있을 때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서 맛집 탐방을 즐기죠. 저한테는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게 참 소중한 일이라서 맛집을 갈 때 꼼꼼히 찾아보고 고민해 보는 편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는 집 근처 양재천을 천천히 산책해요. 양재천은 집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양재천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요. 혼자 있고 싶은 때도 가고, 그냥 음악을 듣고 싶은 때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많이 갑니다. 양재천은 갈 때마다 새롭고 좋아요.

재우 님의 향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음, 저는 음악과 운동 중 만약 하나만 고르면 무엇을 고를 것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두 분야 모두 끝까지 가보고 싶거든요. 둘 다 잘 해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국악예술인 이재우가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양재천을 추천해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양재천을 산책해요.
혼자서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요.

양재천

▣ 대치동 504-1



양재천 메타세쿼이아 길



물서비스301



소전서림

신입 직장인 홍민주

●●

각자의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일종의 질서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각자의 속도로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자의 빠른 속도가 만들어진 질서가 강남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차 직장인 홍민주입니다. 논현역 근처, 소비재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주로 기업 브랜딩,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주요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서비스직을 꿈꾸며 카지노 딜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연히



지금 회사와 연이 닿았어요. 사실 중국 우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때 지금 다니는 회사 소개서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회사의 문화, 추구하는 가치 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말 딱 일치해서 사회생활 첫 커리어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나 훌쩍 지났답니다. 첫 회사가 강남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이 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었고, 여전히 이곳에서 열심히 제 꿈을 키워가고 있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를 쉽게 정의한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사업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람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 임직원들이 보다 행복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HRD, 채용 브랜딩, 조직문화진단과 같은 업무를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회사를 PR하고 브랜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핵심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사업이 아닌 사람 그리고 문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멋진 일이네요! 대신 그만큼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2년 차 직장인의 하루는 어떤가요?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회사는 자율 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10시까지 출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도 잘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유튜브를 봐요. 흔히 이야기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자기 개발 콘텐츠 같은 것들이요. 저는 보통 오전에는 혼자 하는 업무에 집중해요. 회사 관련해서 체크해야 하는 동향, 데이터들 들여다보고, 저와 협업하는 인턴분들 업무도 함께 고민하고요. 대신 오후에는 다른 팀과 협업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아, 퇴근 직전 1~2시간 전에는 다시 개인 업무를 꼼꼼히 체크하고요.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면 7시가 좀 넘는데요, 퇴근한 뒤에는 업무에서 모자람을 느끼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브랜딩과 경영 전반에 대해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의 키워드는 제 자신의 성장이거든요. 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일상비일상커피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직장인의 소중한 점심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1~2번은 다른 팀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 편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어떤 일에 집중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밖에는 저 혼자 시간을 갖거나 같은 팀원들과 부담 없이 맛있는 걸 먹죠. 저희 회사 근처에 413프로젝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카페인데요.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고 카페에 고양이도 있어요.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어서 자주 간답니다.

중국에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면, 정확히는 강남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있을까요? 민주님에게 강남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음, 조금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강남 일대를 오가는 사람들은 참 바쁜 것 같아요. 유난히 빨리 걷고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다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일종의 질서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삼역에서 학동역 일대가 유난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각자의 빠른 속도가 만들어진 질서가 강남의 매력이라면 매력적이겠어요.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요. 지금은 우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능숙해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시간 내어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실도 잘 다지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외부에 회사를 PR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신입 직장인 홍민주가 추천하는 강남의 공간

블루밍 재즈바

- ▣ 테헤란로19길 21 지하 1층
- ▣ 화-토 19:00-02:00 (일, 월요일 휴무)
- ▣ 0507-1466-5026
- ▣ @blueming_jazz

제가 갈 때마다 진짜 힐링하고 오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역삼역 근처에 있는 ‘블루밍 재즈바’라는 곳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공간 자체도 멋있는데, 진짜 힐링 포인트는 라이브 공연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있는데, 라이브로 연주되는 악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힐링 됩니다. 음, 네 ‘힐링 되는 곳’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디지로그 강남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디자인



어떤 도시든 그 도시만의 이미지, 분위기가 있다. 어느 하나로 규정짓는 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만 강남은 빠르고, 세련되고, 화려하다. 이 반대의 수식어인 느리고, 소박하고, 수수한 느낌을 강남에서 받을 수 있을까. 화려한 빛 속,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빛바랜 사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강남이다. 강남이 만들어 가고 있는 디지털적인 감성과 강남이 만들어 냈던 아날로그적 감성, 양면의 모습을 만나볼 시간이다.

디지털 강남

강남을 대표하는 많은 수식어가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다. 초고층 빌딩들, 테헤란로, ASEM 센터 등 강남을 대표하는 것 중 어느 하나 디지털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경제 지구인 강남은 제각각 개성을 뽐내는 빌딩들 사이 가장 빨리, 가장 최신의 것들이 들어오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

4차 산업의 집결지

금융, 무역, 벤처, 첨단 산업 등 4차 산업의 집결지이자 핵심지인 강남. 해가 지고 늦은 밤이 돼도 꺼지지 않는 빌딩들의 조명은 강남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최고에 있는 강남의 모습을 만나보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에서 외국 지명을 딴 도로는 강남구의 테헤란로가 유일하다. 그럼 테헤란로는 우리가 아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맞을까? 맞다면 왜 다른 나라의 도시가 아닌 이란의 도시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시장인 골람레자 닉페이가 서울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삼릉로의 이름을 테헤란로로 변경하면서 우리가 아는 테헤란로가 되었다. 테헤란로는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하며, IT기업, 은행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벤처 1세대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강남. 지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5차 산업, 패션의 메카

패션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강남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말이 전 세계 유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는 강남은 여행객들에게는 쇼핑의 메카로, 디자이너들에게는 영감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명품, 패션의 거리

1990년대 초 압구정동 일대에서 향락적 소비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오렌지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5년에 갤러리아백화점의 명품관이 들어선 후 2008년에는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상부 명품, 패션 문화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지금은 청담, 압구정 일대에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에스팩스 루이 비통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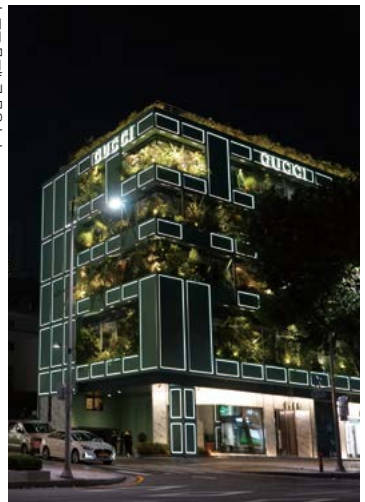
샤넬 서울 플래그십



매종에르메스도산마크



구찌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아날로그 강남

오래된 공간, 낡은 것이 주는 힘이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두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턴테이블
 위 돌아가는 LP판의 노래가, 오래된
 식당에서 추억을 다시 맛보는 일들이
 세월의 때가 묻은 강남의 어느 한 공간에서
 나를 어루만져 줄지도 모른다.

예술적 감성

강남은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여준다. 강남은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옛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강남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강남의 거리 곳곳에 녹아있는 예술을 만나보자.

예술의 거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강남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맛집을 찾고, 카페를 가겠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청담역 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에 이르는
 거리에 회화, 공예, 서예를 하는 많은 화랑이
 모여있다. 1989년 선화랑을 시작으로 차츰 화랑이
 늘면서 강남은 본격적인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 개발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인구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강남의 문화를 빨리 접하기 위한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하나의 문화 주축이 되었다.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예술의 거리인 뉴욕 소호를

강남도현대미술관



떠오르게 하는 이곳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많은 예술가가 영감을 찾고, 작품을 그려 나가고 있다. 지금은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사진, 도예, 가구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강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감각적 공간

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그 기억이 더 오래간다. 강남은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감각적 공간들이 여럿 있다. 청각적으로 즐겁고, 미각적으로 행복한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 위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가 보자.

시각적 공간, LP바

무선 이어폰을 꽂은 귀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음악을 듣는 요즘, 세상의 변화를 그들만은 비껴간 듯한 LP바. 강남의 분위기와는 누가 봐도 이질적인 LP바들이 강남 곳곳에 있다. LP바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역사만으로도 레트로한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에 신청곡을 써서 DJ에게 넘겨보자. 작은 쪽지로 인해 무의미한 일상이 유의미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미각적 공간, 오래가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이야기는 그 공간의 것만이 아닌 방문한 사람 모두의 것이 된다. 강남구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오래가게는 과거의 추억이자 다시 만들어갈 미래가 되어가고 있다. 1976년 압구정에 문을 연 삼원가든은 졸업식, 돌잔치 등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1963년부터 궁중병과 외길을 걸어온 황문철 장인이 만든 떡과 한과 가게인 만나당은 2대째 대를 이으며 사람들의 잔치를 책임지고 있다.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래가게들은 지금도 그 맛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원 코 바 디 데



삼원가든

역사의 숨결

어느 지역이든 역사가 담겨있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가고 있다. 강남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강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선정릉부터 시민들에게 쉼을 선사하는 도산공원까지. 강남 역사의 숨결 위를 거닐어 보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 봉은사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연희국사가 창건한 사찰. 1498년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인 선릉을 위해 능의 동편에 있던 이 절을 중창하고, 절 이름을 봉은사라 개칭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찰은 소실되었으며, 다시 중건되었다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또 겪은 우리나라 아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찰이다. 이후 재건되어 지금은 사찰음식문화에 앞장서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주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주인



휴식과 역사의 가치, 도산공원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공원이 곳곳에 있는 강남. 그중에서도 도산공원은 휴식을 주는 공간인 동시에 역사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곳으로 의미가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 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공원으로 매년 3월이면 이곳에서 도산 선생 추모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공원 내에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의 유해를 합장한 묘소가 있으며, 임시정부사료집, 도산일기 등이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렇듯 휴식적 가치를 넘어 문화와 역사도 공원에 스며들어 있는 곳이 강남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선정릉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정릉. 조선 9대 임금 성종과 정현왕후, 두 사람의 아들인 11대 임금 중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에 의해 왕릉이 파헤쳐지고 재궁이 불태워지는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하지만,

1979년 삼릉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곁으로 돌아와 지금은 역사를 간직한 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조선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선정릉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왕손의 묘역

묘와 능이 많다는 건 그 지역의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진 하나의 사실이다. 강남은 선정릉 외에도 수서동에 자리한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묘역이 있다.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 내외의 묘와 아들인 영순군, 광평대군의 양아버지인 무안대군 방번 내외의 묘 등 700여 기의 무덤이 있는 공동 묘역이다. 이 묘역은 왕손의 묘역 가운데 원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곳 중에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신정릉



중종영릉



북부 피고민유문 배이 초간 선정릉



T.O.P
강남



강남도심

TEST BED
OPEN
PLAY



KINFOLK
DOSAN

강남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강남’이라는 이름만으로 설명이 다 되는 곳이다. 서울 재정 자립도 1위,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곳,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인 2호선 강남역도 강남에 있다. 이처럼 강남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위이고, 열려있으며, 그 시작점에 있다.

TEST BED

‘강남에서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도 실패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출시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피는 곳으로 강남을 선택한다. 외식, 패션, 유통부터 금융, 로봇, 첨단 기술 산업까지 테스트 베드로 강남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시작은 ‘강남’

강남의 공간 한곳 한곳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그렇다면 강남 1호점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너무 많은 곳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루이 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매장부터 맥도날드, 웨이크썬, 노브랜드 피자 등 외식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가 강남에 1호점을 냈다. 또한 자라, 애플, 나이키 여성 특화 매장, 파타고니아, 더콘란샵까지 패션,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도 테스트 베드로 강남을 선택하고 있다.

음식도 유행의 시작이 있다?!

식당과 카페, 상점들은 도시와 거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곳에 어떤 매장이 들어서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진다. 구매력이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은 특히 외식 산업의 첫 번째 선택지로 꼽힌다. 196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외식 전문점이 강남에 들어섰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 음식이 들어서면서 외식 문화의 중심으로 강남이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 도시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음식이다. 과거에는 패스트푸드를 시작으로 패밀리레스토랑, 파인다이닝, 현재는 비건 식당, 카페까지 다양한 외식 분야의 1호점을 강남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맥도날드가 선택한 1호점

햄버거 하면 빠질 수 없는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1988년 압구정 로데오 입구에 한국 맥도날드 1호점이 들어섰다. 그 당시 맥도날드는 외국의 식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젊은층에게 센세이션한 음식으로 맥도날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다. 서울 올림픽과 함께 1988년도를 보여주는 큰 이슈일 정도였으니. 또한 맥도날드 앞에는 약속 메모를 남길 수 있는 메모판도 있었다고 하니 패스트푸드점을 넘어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곳이었다. 이후로 다양한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나면서 2007년 문을 닫게 되었지만, 식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강남이라는 것은 증명된 셈이다.

이제는 비건?

건강과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웰빙이 대두됐다. 이후 육류를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던 채식 인구가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비건 수요가 많아지면서 채식 위주의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남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만큼 비건 1호점이 많다. 대기업인 풀무원은 비건 레스토랑인 플랜튜드 1호점을 열면서 비건 외식 산업까지 확장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거리 곳곳에 디저트, 음료, 햄버거까지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비건 식당들이 늘어가고 있다.

T.O.P.T



핀지 보양저 바



마웨나 비건 거울



음 이타리 앤 베이커리

배달의 시대, 강남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안에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즉시 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의 테스트 베드로 강남이 선택됐다. 사업 초기 단계, 강남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들. 인터파크 퀵 라이브부터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배송 서비스 시작,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까지 모두 강남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거친 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인 강남권역은 구매력이 높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 온라인 배송의 중요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배송 서비스 수요가 많다 보니 도심형 물류센터도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압구정, 청담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퀵커머스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 강남에 대형마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압구정과 청담에는 백화점 내부에 있는 마트 말고는 우리가 아는 큰 대형마트가 없다. 부촌 상권의 특징인 걸까. 대형마트의 역할을 프리미엄 슈퍼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이 1호점을 청담동에 열었으며,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만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매장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해주거나 구매한 채소를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손질해 주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처럼 강남은 마트의 형태도 다른 지역들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키친수진



SSG푸드마켓

성형, 코스메틱은 가로수길

가로수길의 사전적 정의는 ‘시가지의 도로를 따라서 나무들을 줄지어 심어 놓은 길’이지만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사동을 떠올린다. 도산대로부터 압구정로까지 약 800미터 정도 일자로 뻗은 길 양옆으로 은행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있어서 가로수길. 주변에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많아서인지 가로수길에는 국내외 다양한 코스메틱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다.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뻗은 골목은 ‘세로수길’이라 불리며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작은 가게가 모여 있다.

강남=명품

1978년 당시 최고급 아파트인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변이 고급 주거지로 떠올랐다. 자연스럽게 부촌이 형성되면서 1980년대에는 현대백화점, 1995년에는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및 생활관이 오픈했다. 이후 1996년 서울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청담동 명품거리가 형성됐다. 1990년 후반에는 청담동에 웨딩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예물 관련 명품 숍들이 형성되면서 명실상부 강남은 명품이라는 전제가 확고해졌다.

홍보의 목적이 강한 명품관

청담동의 명품관들은 판매하려는 목적보다는 각 브랜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깝다. 하나의 건물 자체가 그 브랜드의 개성과 가치를 보여주면서 건물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명품관에서 명품을 체험해 보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담동을 걷다 보면 분위기 좋은 카페인 줄 알았는데 명품관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명품이라는

가로수길



Apple 가로수길



명품관 서울 서빙고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젠틀맨스너 하양스도상



사계절 갤러리아





이미지를 하나의 제품이 아닌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명품 브랜드들이 강남을 선택했을까. 1994년 조르지오 아르마니 매장을 시작으로 삼성로 대로변에 명품 숍 거리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 손에 꼽히는 명품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 비통은 갤러리아 명품관에, 또 청담의 거리에 입점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에 알리기 시작했다.



롯데월드호텔 강남

MZ 세대가 쇼핑하는 곳

강남에 구매력이 높은 명품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MZ 세대에게 사랑받는 SPA 브랜드 자라, 파타고니아, 나이키 여성 특화 매장 등 모두 강남에 1호점을 내면서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애플, 카메라를 제조하는 라이카, 인테리어 전문점 더쿤란샵까지 강남에 1호점을 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쇼핑을 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강남으로 가길 바란다. 자신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저녁 7시까지 하는 은행

쇼핑, 외식 산업 외에 금융 부분에서도 강남은 1호점이 많다.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등 금융의 중심에도 강남이 빠질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미래형 점포인 강남금융센터를 오픈하면서 업계 최초로 9 to 7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낮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극대화했다. 이처럼 금융의 새로운 출발도 강남에서 시작되고 있다.

설화수 도산



OPEN

각자의 개성과 감각을 가진 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 강남.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강남의 매력을 단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는 강남은 자유롭고, 다채롭고, 흥미롭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강남의 지금을 만나보자.

모든 먹거리는 강남에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청담동은 이국적 음식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식자재와 음식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국적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됐다. 그로 인해 강남은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는 데 다른 곳보다 좀 더 자유롭고 열려있다. 지금은 강남의 거리 곳곳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의 퓨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외국인들도 반한 별별별

여행에서 음식이 고민된다면 현지인이 추천하는 식당이거나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받은 식당에 가면 실패가 없다. 미쉐린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곳’,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해 찾아갈 만한 곳’,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만한 곳’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기준 별을 받은 대부분의 식당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롭게 별을 받은 6곳 중 5곳이 강남에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요리는 ‘식’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곳, 바로 강남이다.

밖으로 뻗는 K-FOOD

강남은 파인다이닝, 브런치 카페 등 이국적인 식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남은 외국인들에게 K-FOOD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보인다. 봉은사에서서는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열고 사찰음식 도시락 경연 대회를 펼치는 등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식다이닝에서는 김치, 김밥 등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려고 퓨전 한식을 선보이면서 이제는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음주 문화

바텐더가 따라주는 위스키를 한 잔씩 두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는 위스키 바가 강남에 유독 많다. 위스키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틀을 깨고 최근에는 MZ 세대들이 강남의 위스키 바를 찾고 있다. 마시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취미 활동이자 문화로



유니콘점 바텐더

자리 잡은 위스키 문화. 위스키가 가진 향과 맛을 공부하고, 여러 레시피를 활용해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음주 문화가 강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사무실을 빌려 쓸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인 공유오피스. 저렴한 가격에 업무 공간을 빌릴 수 있어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유오피스 공급 면적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강남에서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다양한 문화 활동에 열려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강남이다.

테헤란로



교육의 중심지

퇴근 시간이면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 대학생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강남은 성인에게도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출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강남역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남을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의 장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공방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운동 편의 시설이 있으며, 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들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처럼 자기 계발을 하는 성인들에게도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거리, KstarROAD

압구정로데오역 1번 출구,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귀여운 조형물 ‘강남돌’이 눈에 띈다. 강남돌을 시작으로 청담동 명품거리까지 쪽 17개의



아트토이가 케이팝과 스타를 사랑하는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스타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아트토이 앞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가 하면 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팬이 아니더라도 톡톡 튀는 디자인의 아트토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강남구의 일원, 외국인

문화뿐만 아니라 강남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 강남구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생활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8월 지자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도 오픈했다. 선진 의료 인프라를 찾는 해외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찾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남은 문화를 넘어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탕 컨템포러리 아트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갤러리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한국, 강남에 들어오고 있다. 독일 베를린 유명 갤러리 퀴닉은 도쿄 본점을 철수하고 2021년 4월 서울 청담동에 퀴닉 서울을 개관했다. 비엔날레급 작가 40여 명이 있는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아시아의 수많은 지역 중 강남을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웨이웨이, 웨민젠 등이 소속된 아시아 최대 규모 갤러리인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강남에 개관하면서 세계가 인정한 갤러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5대 갤러리 중 하나인 화이트 큐브 서울도 2023년 도산대로에 개관했다. 해외 거점 갤러리들이 강남에 등지를 틀면서 기존 작가들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에게도 기회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 퀴닉 서울

PLAY

강남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존재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임과 동시에 다양한 가치 속 그들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놀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강남 사람들. 초고층 빌딩 사이의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고, 양재천 거리를 따라 라이딩을 하고, 또다시 카페로 향해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강남을 만나보자.

강남이 무대가 되는 시간, 축제

카페, 식당 등이 다양해 강남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강남이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축제. ‘이런 축제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축제들이 1년 365일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서트부터 옷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패션쇼까지. 강남 전역이 무대가 되는 강남페스티벌 기간에는 다채로운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강남을 물들인다. 강남의 축제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건 강남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준다. 축제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강남 축제의 지금을 느껴보자.

유니크한 축제, 강남 디자인위크

브랜드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관점으로 가득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강남 디자인위크. 논현가구거리와 삼성, 청담, 신사동 일대에서 열리는 강남 디자인위크는 가구, 인테리어, 아트, 건축자재 등 디자인 분야의 관내 업체가 참여해 디자인 클래스, 브랜드데이, 스탬프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MZ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사진작가, 공예가 등 아티스트 작품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한 전시도 볼 수 있어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둘러야 할 곳이 되고 있다.

이태원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강남 디자인아트



이탈콘서트 공연장

홍의 민족이 모이는 곳, K-POP 콘서트

매년 10월 초 개최되는 K-POP 콘서트. 2022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한류 콘서트는 강남의 대규모 K-POP 콘서트이다. 코엑스 앞 영동대로를 통제하여 펼쳐지는 공연은 12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강남의 밤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매년 최정상 라인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올해는 전 출연진이 함께 피날레를 장식했으며, 내년 콘서트의 피날레는 누가 차지할지 더욱 기대가 커지는 지점이다.

이외에도 매일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365일 편안편 강남’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공연에 출연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강남은 누구에게나 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건물 하나, 작품 하나

강남에 들어서면 놀라는 일 중 하나가 건물의 모습이다. 하늘 높게 뻗은 빌딩들, 낮은 건물들이 제각각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건물 자체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면서 강남은 건물들이



365일 편안편 강남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매년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을 뽑으며, 200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여 개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의 실제 건축가를 만나볼 수 있는 유닛투어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길을 걷는 거 자체가 아름다운 전시 작품을 둘러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곳, 강남이다.

연예인들이 모인 곳, 강남

음악과 축제가 있는 강남이라면 빠질 수 없는 곳, 연예기획사. 배우, 가수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연예인들을 보유한 주요 기획사들이 강남에 모여있어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모이고 있다. 특히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일대 한류스타거리에 많은 기획사가 모여 있어 한류 팬들이 방문하는 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유닛투어



강남 디자인워크



G-퀵서 페스티벌



드림앤디지탈뮤움

강남의 브런치 문화

20여 년 전인 2005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브런치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침과 점심의 합성어인 브런치. 이른 점심 팬케이크, 샐러드, 오믈렛, 샌드위치 등 가벼운 식사를 하는 브런치는 대중화를 이루었다. 강남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브런치 카페를 만날 수 있을 정도. 구석구석 브런치 카페가 즐비해 간단한 모임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강남. 강남의 브런치 문화를 만나보자.

강남러 감성 듬뿍, 특별한 공간

샐러드, 오믈렛, 베이글 샌드위치, 수플레 팬케이크 등 브런치 메뉴도 맛있지만, 사실 브런치 문화에 있어 주목받는 부분은 공간. 오후 12시가 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브런치를 하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 자기 계발을 하는 강남 사람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화 공부나 직무에 맞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파는 브런치 카페에서는 커피 모임을, 와인을 판매하는 브런치 카페에서는 와인 모임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강남의 브런치 카페는 각자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도와주는 매력적인 공간임에 틀림없다.

핸드 드립도 강남에서!

외국인들이 서울을 오면 놀라는 이유 중 하나가 카페이다. 무수히 많은 카페와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안다고 한다. 강남 또한 카페가 많은데 특히 핸드 드립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핸드 드립 카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품질 좋은 원두를 선택하여 직접 내려볼 수 있는 클래스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정규 클래스뿐만 아니라 원데이 클래스도 많아 커피를 좋아한다면 강남의 핸드 드립 전문점에서 배워봐도 좋다.

피카미어인스 카페



신사 하우스



당근마켓으로 하는 소모임

2015년, 당신 근처의 마켓이란 뜻으로 중고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GPS 기반으로 내 지역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게시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게 당근마켓의 특징. 또한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는 커뮤니티가 당근마켓 내에서 점점 늘어나면서 당근마켓을 보면 그 동네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강남은 당근마켓도 타지역과 다른 양상을 띤다. 오전에 양재천카페거리에서 함께 하는 와인 동호회, 골프 동호회, 프랑스어 모임 등 일반적인 동호회보다는 특정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들이 많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강남은 직장인들도 많아 퇴근 후 독서 모임, 러닝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존재하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른 곳에 비해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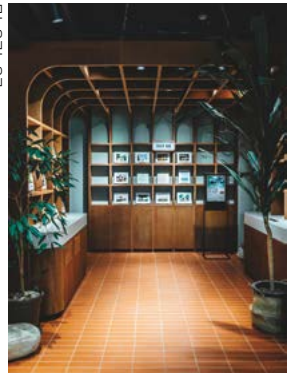
place 1-3



일상 속의 취미

강남은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거리가 많다. 전시회 박람회, 갤러리, 영화관, 공연장, 공방 등이 많이 있으며, 단기간 하는 팝업스토어도 많이 열리는 곳이다. 갤러리와 전시관이 너무 많아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강남아트를 찾아봐도 좋다. 매달 새로운 갤러리와 전시를 모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라이딩, 러닝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곳도 강남이다. 강남 사람들은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퇴근길에도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취미를, 취미 안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

일상비밀상의샘



CHAPTER

2

강남에 다가가다

강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 여러 맛집, 브랜드들이지만,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문화적으로 독창적이고 뛰어난 곳이 강남이다. 강남은 과거에서 현재를 넘어 오면서 강남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냈다.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 낸 강남만의 특수성, 예술, 문화, 축제 그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자. 복잡한 도심 속 숨이 있는 공간은 강남의 또 다른 매력.



강남의 축제에 다가가다

6월 축제 페스티벌





축제를 생각하면 화려하고, 다채롭고, 즐겁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폭죽만 있는 축제가 아닌 강남은 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다줄 축제들이 일상을 가득 채운다. 매일 방문해도 새로운 축제를 볼 수 있는 강남의 준비된 시간에 한발 들여다보자.

음악에 몸을 맡기는 시간

음악이라는 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언제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음악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이미 빠져나오기에는 늦은, 다시 한번 음악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힐링이 되기도,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들 수도 있는 매월 다양한 축제와 콘서트가 펼쳐지는 강남의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길 바란다.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visitgangsam.net

강남의 축제에 다가가다

365일 음악과 함께, FUN&FUN

5월~11월

거리 일대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강남. 강남 곳곳에서 거리행사와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매번 색다른 무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FUN&FUN. 365일 음악과 함께하는 강남의 무대를 즐겨보자.

스트릿 강남 파이터, Beat one

삼성동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댄서들의 자유롭고 힙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비트원. 온라인 심사를 통과한 팀의 단체 댄스 퍼포먼스를, 2일 차에는 현장 예선을 통과한 팀의 3on3 브레이크 댄스배틀 토너먼트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무대, G-컬처 페스타

9월

팝페라, 재즈, 발라드,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G-컬처 페스타. 공연뿐만 아니라 아트앤시티 라운지를 설치해 예술과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제는 G-KPOP

4월 or 5월

이제는 강남의 K-POP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남은 K문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강남뮤직페스티벌 G-KPOP 콘서트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선곡과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Beat one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봤어

상대의 기호에 맞춰주는 상황에서 쓰는 관용구,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리는 음식, 선물 등을 준비할 때 상대방에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 봤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강남의 축제도 국내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들이 많아 누군가를 특정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채롭게 준비한다.

축제의 집합체, 강남페스티벌

10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한류와 패션, 나눔이 함께하는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한 2012 강남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 매년 새로운 테마, 새로운 시도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강남에서 빠질 수 없는 쇼! 쇼! 쇼!, 패션쇼

국내 패션계 대표 디자이너 패션쇼부터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 해외 디자이너 패션쇼 등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을 무대로 펼쳐지는 로드 패션쇼.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부터 시작해 강남 패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는 홀로그램 패션쇼까지 다양한 패션쇼가 펼쳐진다. 그 밖에 뷰티 패션마켓, 패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축제다.

강남의 축제에 다가가다



2023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글로벌 콘서트,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강남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콘서트,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강남을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채운다.

이 외에도 K-Food와 아이돌 메이크업, 인생네컷 등 다양한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스테이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오직, 강남에서만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의 우수한 의료 기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의료관광 축제인 강남 메디투어 페스타와 메타버스 세계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강남 축제인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의료관광과 메타버스 세계는 오직 강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이다.



2023 영동대로 K-POP 콘서트

오늘은 강남에서 이거 할래?

축제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준다. 특히 여행처럼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이벤트처럼 다가오는 축제는 새로운 재미와 매력을 선사하기 충분하다. 일상의 특별한 이벤트 속, 강남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답고, 깊은 도시인지 느껴보자.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
유니투어**

상시 운영

‘당신을 기다리는 가장 특별한 강남 이야기’라는 주제만큼 강남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 오직 강남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공간, 문화, 그리고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지나간 과거를 마주하다

강남을 생각하면 현재와 미래만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밭뿐이던 강남. 그 변화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1, 2차 단지가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해서, 1987년 4월 14차까지 총 6,148가구의 대단지를 이룬 압구정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 1966년 1월 착공해 4년 만인 1969년 12월 준공된 한강에 건설된 네 번째 교량인 한남대교, 그리고 1978년 5월 27일 사업 승인을 취득하고, 1979년 9월 3일 준공된 은마아파트, 은마상가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라이프스타일의 표준이 된 아파트 단지의 역사와 강남의 진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강남의 축제에 다가가다



유니투어



유니투어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기 위해

여러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 보고 선조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역사를 알아보고는 한다. 역사를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배움이 된다. 이렇듯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역사를 알면 그 나라, 그 도시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강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봉은사, 선정릉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높은 빌딩 사이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한국의 역사를 간직한 봉은사에서 사찰 순례, 다선, 금니사경 등의 불교문화를 경험하게 해 준다. 또한 선정릉에서는 옛 선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복을 입고 왕릉을 둘러보며 유교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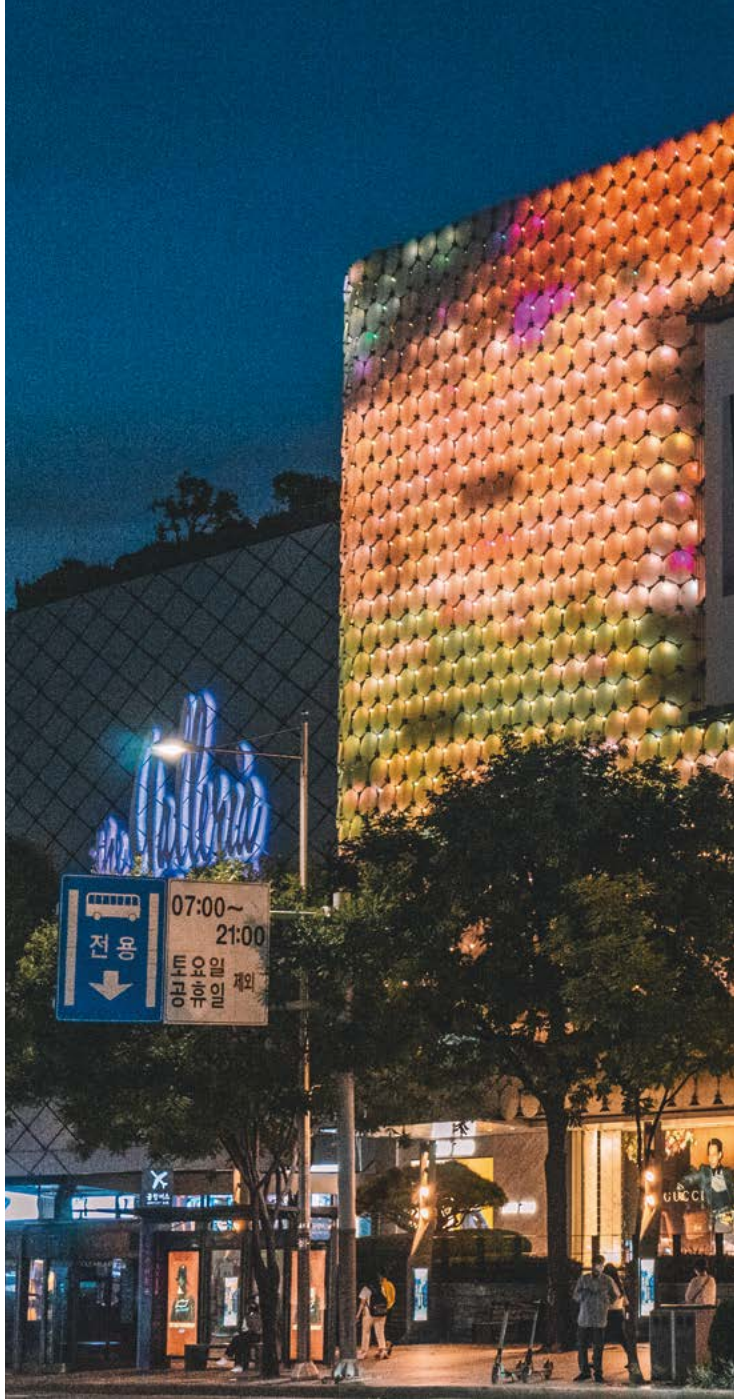
혼자보다는 함께여서 재밌는 시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옆집,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어려워졌다. 강남은 오늘날의 환경에서 모르는 누군가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전문 강사진이 스트레칭부터 코스까지 서포트해 줘 초보라도 누구나 걱정 없이 강남의 도산공원, 삼성역 일대 야경 속을 사람들과 달릴 수 있는 강남 시티런과 K-pop 트레이닝의 생생한 현장을 엿볼 수 있는 Ktown4u 아카데미를 둘러보고 전문 강사진들과 함께 최근 가장 인기 있는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함께라서 더 재밌는 시간을 강남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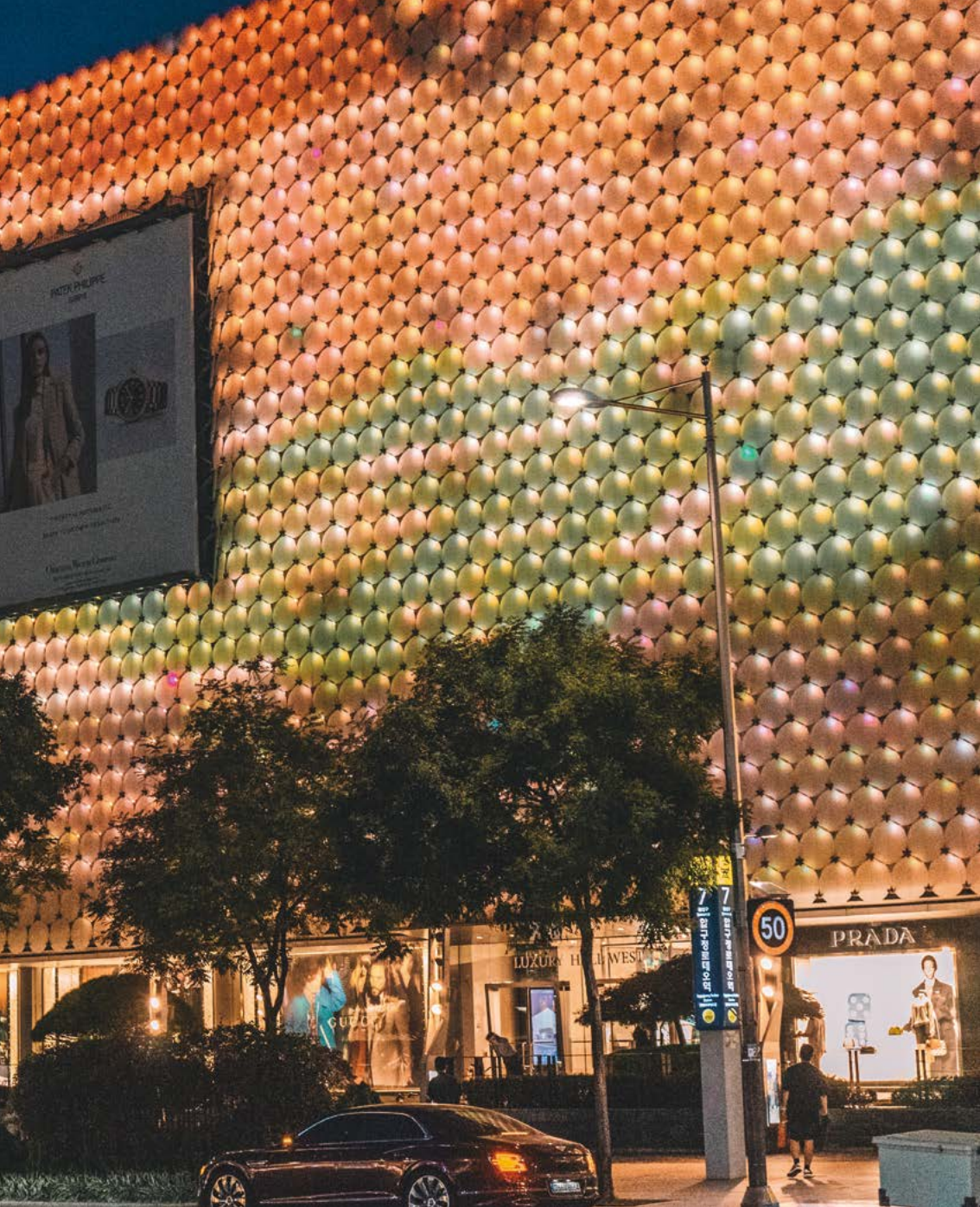


이태원

강남의 예술, 문화에 다가가다



문화비아이더블랜드, 영수남



강남의 일상엔 언제나 예술이 가까운 곳에 있다.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 갤러리가 있고 아트 페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이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와 콘서트, 그리고 케이팝 스타의 팬 미팅까지 크고 작은 공연장은 항상 성황을 이룬다. 상업 시설의 디스플레이조차 평범하지 않다. 예술이 넘쳐나는 거리 곳곳에 영감이 있다.

일상처럼 예술 작품과 만나다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강남에는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가 모여 있으며 사무실만 있을 것 같은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의 지역에도 의외의 공간에서 예술 작품과 마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강남의 예술, 문화에 다가가다



 압구정로데오역

페로탕 도산파크



-  A 도산대로45길 10
-  T 02-545-7978
-  H 월-토요일 10:00-18:00(일요일 휴관)
-  U perrotin.com
-  @galerieperrotin

2016년 삼청동에 등지를 틀며 한국에 진출한 페로탕이 서울에 마련한 두 번째 공간. 페로탕은 1990년 엠마누엘 페로탕(Emmanuel Perrotin)이 설립해 파리를 시작으로 뉴욕, 홍콩, 도쿄, 두바이 등 7개의 도시에서 11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갤러리. 삼청동에 갤러리를 오픈한 후 박서보, 정창섭 등 우리나라 작가를 해외에 알리고 해외 작가를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 온 페로탕이 서울에 두 번째 공간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지금 서울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인지 보여준다. 청량한 느낌을 주는 전면 파사드가 인상적인 페로탕 도산파크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삼청동 갤러리보다 넓고 시원스럽다.

코닉 서울

2002년 설립 이후, 현대 미술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성장한 코닉이 2021년 청담동에 아시아 진출의 거점인 코닉 서울을 개관했다. 놀랍게도 그 위치는 MCM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5층과 루프탑. 특히 루프탑은 코닉의 다른 갤러리에는 없는 공간으로 청담동에서는 드물게 높은 곳에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개관전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코닉 소속 예술가 30여 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한국의 관람객에게 코닉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 ▣ 입구정로 412 MCM HAUS 5층
- ☎ 02-3442-6968
- 📅 화-토요일 11:00-19:00 (일, 월요일 휴관)
- 🌐 koeniggalerie.com
- 📱 @koeniggalerie



©코닉 서울

©코닉 서울



이길이구 갤러리

가로수길의 소란함이 한풀 꺾이는 골목, 지번 주소로 신사동 519-22에 이길이구 갤러리가 있다. 주소에서 따온 건가 싶은 독특한 이름은 소통을 뜻하는 2개의 길(二吉), 순환하는 2개의 입(二口)을 의미한다. 2015년에 개관한 이길이구 갤러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동시대 문화예술을 소개해왔다. 회화나 조각에 머물지 않고 사진, 일러스트,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에서 고미술까지 그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해진 현대인의 미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의 선봉자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과 깊은 예술적 교류를 나눈 포도그래퍼 임영균, 한국 도예계의 1세대 작가 강석영부터 젊은 작가인 나난, 콰야 등의 작품까지, 이길이구 갤러리에선 항상 신선한 자극과 만날 수 있다.

- ▣ 강남대로158길 35
- ☎ 02-6203-2015
- 📅 화-토요일 10:00-19:00 (월, 일요일 휴관)
- 🌐 2gil29gallery.com
- 📱 @2gil29gallery_official





 압구정로데오역

호림 박물관 신사분관

1982년 개관한 호림 박물관은 성보 문화재단 이사장 윤장섭 선생이 기증하고 출연한 유물과 기금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그는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고자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신림 본관이 개관했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 6월 신사분관이 문을 열었다. 호림 박물관 신사분관과 호림 아트센터는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박물관동은 도자기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부드러운 곡선이 인상적이다. 전시실은 박물관동 2~4층에 위치하며 1년에 3~4회 정도 기획전을 개최한다.

- A** 도산대로 317 **T** 02-541-3525
- H** 화-토요일 10:30-18:00 (월, 일요일 휴관)
- U** horimmuseum.org/sinsa

©박주연 개인전 <안어 깃털> 전시 전경, 아틀리에 에르메스, 2021, 사진 김성태, 에르메스 재단 제공



©남화연 개인전 <가브리엘> 전시 전경, 아틀리에 에르메스, 2022, 사진 김성태, 에르메스 재단 제공



©로르 프루보 개인전 <심층 여행사> 전시 전경, 아틀리에 에르메스, 2022, 사진 김성태, 에르메스 재단 제공



입구정로데오역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에 위치한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입구가 좀 험갈리는데 원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정면이 아닌 뒤로 돌아가 주차장 쪽으로 난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하로 내려가 카페 마당을 완전히 지나치면 전시 공간이 나온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0년 외국계 기업 최초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한 젊은 작가들은 지금 국내외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는 중이다. 아틀리에 에르메스 역시 2006년 개관 이후 꾸준히 동시대의 젊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 도산대로45길 7

☎ 02-3015-3248

☑ 목·화요일 11:00-19:00 (수요일 휴관)

☒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강남의 예술, 문화에 다가간다



압구정로데오역

김리아 갤러리

미술을 전공한 엄마(김리아 대표)와 건축과 파인 아트를 전공한 딸(김세정 실장)이 의기투합해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시 공간은 1, 2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1층 한쪽에 위치한 발코니 덕분에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다. 김리아 갤러리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 시작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4년부터 ‘마중물 아트마켓’을 개최한다. 갤러리가 아닌 작가 개인이 주체적으로 부스를 내어 참여하기 때문에 작가가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 압구정로75길 5 1층
- 02-517-7713
- 화-토요일 11:00-18:00 (일, 월요일 휴관)
- kimreeaa.com
- @kimreeaagallery_official

압구정로데오역

탕 컨템포러리 아트

2022년 3월 아시아 최대 규모 화랑인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청담동에 위치한 송은 아트센터 지하 2층에 자리를 잡으며 한국에 진출했다. 1997년 방콕에서 시작해 베이징, 홍콩에 이어 네 번째 지점이다. 탕 컨템포러리 아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를 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를 비롯해 많은 중국 작가, 동남아시아 작가가 소속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 미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압구정로75길 6 지하 2층
- 0507-1392-8912
- 화-토요일 10:30-18:00 (일, 월요일 휴관)
- tangcontemporary.com
- @tangcontemporaryart



 압구정로데오역

K현대미술관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걸어서 3분, 6층 건물 전체가 미술관이다.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현대미술관이다’, ‘관람객, 예술가가 되다’, ‘나의 어린 왕자에게’, ‘오즈의 미술관’, ‘라스트 북 스토어’ 등 독창적인 전시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관람객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품 속으로 뛰어들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를 많이 기획하는 편이다.

A 선릉로 807

T 02-2138-0952

H 화-일요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U kmcaseoul.org

I @kmcaseoul



© K현대미술관



삼성역

마이아트 뮤지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섬유센터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 2019년 7월 개관한 마이아트 뮤지엄은 삼성동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 알폰스 무하, 샤갈, 앙리 마티스, 호안 미로 등 굵직한 전시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21년 개최한 ‘앨리스 달튼 브라운, 빛이 머무는 자리’ 전시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Alice Dalton Brown)의 해외 최초 회고전으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전시 중에는 평일 매일 3회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고 사전 신청할 경우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도 받을 수 있다.

- [A]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B1층
- [T] 02-567-8878
- [H] 매일 10:00-19:40
- [U] myartmuseum.kr
- [I] @myartmuseum_official

선릉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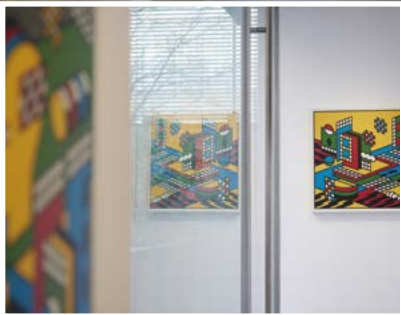
포스코 미술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문화예술 후원을 빼놓을 수 없다. 1995년 포스코 갤러리가 만들어졌고 1998년 포스코 미술관이 개관했다. ‘예술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포스코 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문화예술품 수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굳이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도 포스코 센터 안과 밖에 이우환의 ‘관계항’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놓여 있어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과 접할 수 있게 했다.

- [A]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지하 1층
- [T] 02-3457-1665
- [H]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 휴관)



©김태화



©김태화

©노블레스 컬렉션



 압구정로데오역

노블레스 컬렉션

‘Bring Art to Life’를 슬로건으로 생활 속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을 전달하기 위해 오픈한 갤러리, 노블레스 컬렉션. 외관부터 하나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Noblesse>, <Noblesse MEN>, <artnow>를 발간하는 (주)노블레스 미디어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해 다양한 전시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작가 발굴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전시 작가를 알리며,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 선릉로162길 13

T 02-540-5588

H 화-토 11:00-19:00 (일, 월, 공휴일 휴관)

U noblessecollection.com

I @noblessecollection

오감이 즐거운 공연 예술

공연장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예술은 이제 친숙한 문화예술 활동이 되었다. 강남에는 코엑스를 필두로 다양한 공연 예술 행사에 적합한 공연장이 많은 편이다. 그중 대표적인 공간을 살펴보자.

 삼성역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은 1,004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다. 2009년 개관작인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뮤지컬 ‘아몬드’, ‘팬레터’, ‘젊음의 행진’ 등이 공연되었으며 콘서트나 팬 미팅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객석은 건물 5, 6층에 있으며 티켓 부스는 5층이다. 트레이드 타워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2호선 삼성역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코엑스몰 동문 주차장이 가깝다.

A 영동대로 513 코엑스 아티움 5층 **T** 1661-5628

U coexartium.co.kr



 삼성역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KT&G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상마당. 홍대, 춘천 등 총 다섯 군데가 있으며 그중 대치는 본사인 KT&G 타워에 위치한다. KT&G 타워 3층에 위치한 대치아트홀은 객석 422석 규모의 중간 크기의 공연장으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1층에는 전시관인 대치 갤러리가 있다.

A 영동대로 416 **T** 02-3404-4311

U sangsangmadang.com/main/DC







VOD SUITE

국내 최초 스트리밍 방식의 프라이빗 시네마를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 프라이빗 영화관. ‘VOD를 SUITE한 공간에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에서는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온, 티빙 및 개인이 소장한 영상 등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다. 영화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을 추천한다. 현재는 전체 대관만 가능하다.

- [A] 논현로120길 6 [T] 0507-1340-0791
- [H] 화-일요일 14:30-22:00 (월요일 휴관)
- [U] vodsuite.com
- [I] [@vodsuite](https://www.instagram.com/vodsuite)



 압구정역

광림아트센터

신사동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거리 중간쯤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는 강남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연 시설 중 한 곳이다. 지하 1, 2층에 위치한 장천홀은 클래식 공연을 주로 올리는 다목적홀로 613석 규모의 중극장이다. 2014년 개관한 BBCH홀은 객석 수 998석의 대극장으로 뮤지컬 전용 홀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넥스트 투 노멀’, ‘베르테르’, ‘시라노’, ‘서편제’ 등의 뮤지컬이 BBCH홀에서 공연되었다. 객석은 지상 8, 9층에 위치하며 티켓 부스는 8층에 있다.



A 논현로163길 33
T 02-2056-5787
U klarts.kr

 삼성역

백암아트홀

2004년 개관 이후 뮤지컬, 콘서트,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올려온 백암아트홀. 총 객석 수 417석의 중극장이다. 뮤지컬 ‘헤드윅’, ‘스토리오브라이프’ 등이 백암아트홀에서 공연되었다. 객석과 티켓 부스는 지하 2층에 있다. 삼성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편하지만 그에 반해 주차장이 굉장히 작다. 인근 탄천 주차장 이용을 추천한다.

A 테헤란로113길 7 **T** 02-559-1333 **U** baekamhall.com



그 외 강남구의 공연장

예림당아트홀 **A** 언주로 337 동영문화센터 2층
T 02-6413-3689
U amculture.co.kr

윤당아트홀 **A** 언주로 844 B1
T 02-3446-9795
U ydart.co.kr

일지아트홀 **A** 선릉로 806 B2
T 02-2016-3355
U ilchiarthall.com
I @ilchiarthall

쉽이 있는 거리, 쉽이 있는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자연 속에서 온전히 걷고 싶은 시간은 누구나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강남은 가장 복잡하면서 바쁜 도시지만, 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쉽고 여유를 주는 곳이 곳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강남의 예술, 문화에 다가가다



강남둘레길

봄이면 벚꽃이, 가을이면 낙엽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둘레길. 명품하천길, 생태하천길, 정상숲길, 둘레숲길 등 총 4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양재천에서 시작해 탄천 상류 쪽으로 걸어가는 코스인 명품하천길은 봄에 양재천 벚꽃길도 함께 볼 수 있다. 탄천 물길을 거슬러 올라 세곡천까지 닿는 코스인 생태하천길도 추천한다. 구간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길 바란다.

대모산

조선 시대 때 명당으로 알려져 대대로 왕족의 묘터로 사용된 높이 약 293m의 대모산. 산의 모양이 늙은 할머니를 닮아 할머니산으로 불리다가 조선 시대 태종 이방원과 그의 비인 원경왕후 민씨 묘인 현릉이 대모산 남쪽에 조성되면서 왕명에 의해 대모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산 정상에서는 강남 일대와 한강이 내려다보인다. 산 초입에는 각종 희귀 나무 등을 심어 놓은 자연 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 및 가족 단위로도 산책하기 좋다.



▲ 개포동 일대

매봉산

산 아래에 돌이 많다고 하여 독구리산이라고도 불리는 매봉산. 우면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양재사거리 낮은 언덕을 지나 도곡동 매봉산의 88m와 95m 봉우리를 형성한다. 낮은 산이라 가볍게 산책하면서 걷기 좋으며, 상수리 나무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해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 좋다.

▲ 도곡동 일대







 압구정로데오역

도산공원

면적 2만 9,974㎡의 공원으로 1973년 도산 안창호의 애국정신과 교육 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공원. 도산공원 주위로 카페와 맛집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하나의 핫 플레이 되었다. 공원 앞으로 청담동에서 논현동에 이르는 3,250m 길이의 도산대로가 지나 많은 사람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도산공원부터 시작해 천천히 걸으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  도산대로45길 20
-  24시간 운영

봉은사

강남 도시 한복판에서 전통의 미와 역사를 생각하며 거닐 수 있는 1,2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사찰. 우리나라 선종 불교의 대표적 사찰로 신라 원성왕 시절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화를 입었지만, 중수와 재건을 반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봉은사의 당우는 대웅전, 지장전, 영산전, 북극보전, 판전, 미륵전, 영각등의 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도군과 비석군도 있다. 템플스테이도 운영하니 참고할 것.



☎ 봉은사로 531
☎ 02-3218-4800



near by.

삼성해맞이공원

☐ 영동대로128길 39

탁 트인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삼성해맞이공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던 곳으로, 폐쇄 예정이던 배수지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2022년 사람들에게 개방했다. 올림픽대로, 코엑스 등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숨은 야경 명소로도 사람들에게 알음알음 알려지고 있다. 공원 이름에 해맞이가 들어간 만큼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CHAPTER

3

강남을 큐레이션 하다

강남은 거리에도 건물에도 식당에도 바에도 모두 그곳만의 이야기가 스며들어있다. 오래된 공간에는 강남의 역사가 깃들어 있으며, 새로 생긴 공간에는 또 강남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강남의 공간에는 그 공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역사가 만난 문화, 예술 공간부터 트렌디한 카페, 직장인들이 선택한 식당까지 강남 공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공간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백 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공간도 단 일주일의 팝업 스토어도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강남은 모든 공간의 실험실이자 격전지이자 또한 최종 목적지이다.

까다롭고 섬세하며 세련된 강남의 공간, 당신이 원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

Space GN

강남의 공간

문화도 소비하는 시대

복합 문화 공간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역할만을 맡는 시대는 지나갔다.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고민할 것 없이 스페셜리스트가 모여 제너럴리스트가 되었다. 잘 만들고 매만진 공간품, 정성들인 음식, 고민의 궤적을 읽을 수 있는 전시와 책. 이 모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소개한다.



 수서역

식물관 PH

식물관 PH는 단 한순간도 고요할 수 없는 도심 속에서 모처럼 눈과 귀를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입장권 가격에는 음료 1잔이 포함되어 있다. 3, 4층은 전시 공간으로 3층 전시실 한쪽은 산을 향해 커다랗게 창이 나 있어 바깥의 풍경을 빌려온다. 전시 일정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평로34길 24
-  02-445-0405
-  평일 12:00-18:00 (주말 휴무)
-  sikmulgwan.com
-  [@sikmulgwan.seoul](https://www.instagram.com/sikmulgwan.seoul)





신사역

옐로우바스켓

‘일상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체형 팝업 플랫폼, 옐로우바스켓. 여러 입점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복합 문화 공간이다. 온라인 쇼핑의 단점인 불가능한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곳이다. 매번 다른 브랜드들의 전시가 이루어지니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해 체험해 보길 바란다.

- Ⓐ 압구정로10길 30-1
- ☎ 070-8985-7578
- 🕒 매일 11:30-19:3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 🌐 yellowbasket.co.kr
- 📱 @yellowbasket.store

압구정로테오역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

도산공원을 등지고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 지금 가장 뜨거운 브랜드 3개가 모였다. 정식 명칭은 ‘아이아이컴바인드 하우스 도산’이지만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이란 이름이 더욱 익숙하다. 2011년 탄생한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는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은 젠틀몬스터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 1층과 1.5층에서는 항상 새로운 전시와 구성이 방문하는 이를 맞이한다. 2층과 3층은 젠틀몬스터의 쇼룸이며 3층엔 젠틀몬스터 로봇 랩이 만든 로봇 ‘프로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4층은 코스메틱 브랜드 템버린즈 매장이고 지하 1층은 디지털 전문점 누데이크. 어느 층에 가더라도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감각적인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 압구정로46길 50
- ☎ 070-4128-2122
- 🕒 매일 11:00-21:00
- 🌐 gentlehaus.com
- 📱 @gentlemonster







 신사역

신사하우스

갈색 벽돌 외관을 가진 오래된 빌라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다. 1996년에 건축된 낡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녹여내는 신사하우스. 이곳에서는 매번 다양한 전시와 팝업,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1층에는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는 타만타 커피바도 있다.



© 신사하우스

-  강남대로162길 27
-  010-7251-8813
-  매일 11:00-20:00
-  @sinsahouse

- Ⓐ 안주로168길 24
- ☎ 070-4333-4323
- 🕒 매일 10:00-19:00,
주말 브레이크 12:00-13:00
- 🌐 kinfolk.kr
- 📱 @kinfolkdosan



🚗 압구정로데오역

킨포크 도산

미국 포틀랜드에서 창간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킨포크와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타르틴 베이커리가 만났다. 이제 킨포크는 매거진이라기보다는 느리고 소박한 생활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타르틴 베이커리 역시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 천천히 빵을 굽는 브랜드로서 그 결이 비슷하다. 1층은 타르틴 베이커리의 공간이며 2층은 킨포크가 기획하는 전시가 있을 때마다 개방하곤 한다.



- Ⓐ 안주로133길 11
- ☎ 02-6929-4470
- 🕒 화-일요일 11:00-20:00 (월요일 휴무)
- 🌐 platform-l.org



🚗 학동역

플랫폼엘

2016년 개관한 플랫폼엘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예술체험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아트센터. 플랫폼엘 건물은 제9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유려하게 동글러진 모서리가 멀리서도 강렬하게 다가온다. 건물에 둘러싸인 중정에서는 퍼포먼스,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아트숍과 카페가 중정을 향해 열려있다. 갤러리는 지상 2, 3층에 있고 4층에는 강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럭셔리룸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예술 강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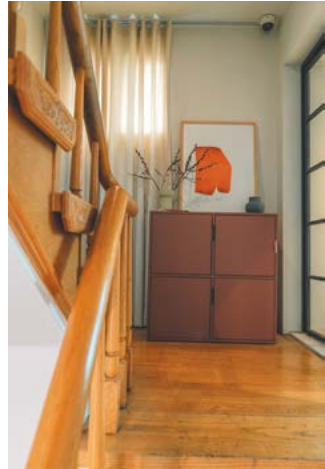


 신사역

place 1-3

앞다투어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기 바쁜 가로수길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굳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 건물 앞에 놓인 작은 입간판에 이끌려 들어가면 4층까지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갈색 유리문 너머는 완전 다른 세계. 실제 가정집을 개조한 공간이라고 한다. 전부 판매하는 물건인데도 모든 상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것만 같다. 5층까지 상점이 이어지고 6층에는 작은 서재가 있다. 공간의 성격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기도 한다.

- A 압구정로10길 21 4층 T 0507-1437-1311
- H 화-일요일 12:00-19:00 (월요일 휴무) U place1-3.com
- I @place1_3



 신사역

피겨 앤 그라운드

붉은 벽돌로 층층이 블록을 쌓아 올린 것 같은 외관이 인상적이다. 30년이 넘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피겨 앤 그라운드는 제39회 서울특별시 우수상을 수상한 건축물. 1층엔 카페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파는 소매점이 들어와 있다. 지하 1층과 2층의 용도는 유동적이며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곤 한다. 특히 첫 번째 전시인 ‘우리가 몰랐던 이효리’ 사진전은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다. 3층에서 5층은 공유 오피스이며 무프톱에서는 신사동 일대, 날이 좋으면 남산타워까지 훤히 보인다.

- A 논현로153길 53



매봉역

PEEK

도산공원 근처에서 소품을 운영하는 가구 편집숍 에이치픽스(HPIX)에서 운영하는 공간. 1층 카페 PEEK의 가구는 특별하다. 바로 바우하우스 정신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독일 브랜드 텍타(TECTA)의 제품이기 때문. 물론 에이치픽스가 고른 가구들이다. 카페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한 책꽂이에는 화보와 사진집 등이 표지가 잘 보이게 놓여 있고 바우하우스나 텍타에 관한 책을 판매하기도 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과 3층은 전시 공간이다. 전시 정보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개포로17길 28 1층
- ☎ 0507-1377-3227
- 🕒 화-일요일 10:00-19:00 (월요일 휴무)
- 📱 @peek_cafe



압구정역

High Street Italia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와 브랜드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라는 컨셉으로 이탈리아 무역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이탈리아 도서를 만나 볼 수 있는 도서 라운지, 이탈리아 여행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이탈리아 관광청 상설 라운지, 이탈리아 약기를 볼 수 있는 약기 전시관 등 이탈리아와 관련해 다양한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매번 색다른 이탈리아 브랜드들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운영하니 이탈리아에 관심 있다면 꼭 방문해 보길 바란다.

- 📍 가로수길 69
- ☎ 02-3446-9527
- 🕒 화-일요일 11:00-20:00 (월요일 휴무)
- 🌐 highstreetitalia.com
- 📱 @highstreet_italia





- ⓐ 역삼로 180 1층
- ☎ 070-8885-1112
- 🕒 평일 09:00-19:00 주말 11:00-18:00
- 📍 @fyi_lounge

역삼역

fyi

스타트업의 산실인 역삼로 창업가거리에 위치한 fyi. '참고로'라는 뜻의 축약어 'for your information'에서 모티프를 얻어 일하는 사람에게 자극이 될 유무형의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폭이 넓은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입구 오른쪽에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물이라면, 그것이 예술작품이든 책이든 볼펜이든 향수든 fyi의 관점으로 전시를 해놓는다. 가장 안쪽에는 '일하는 일상'을 위한 큐레이션 서가가 있다. 서가 옆으로 난 문을 열고 나가면 아담한 정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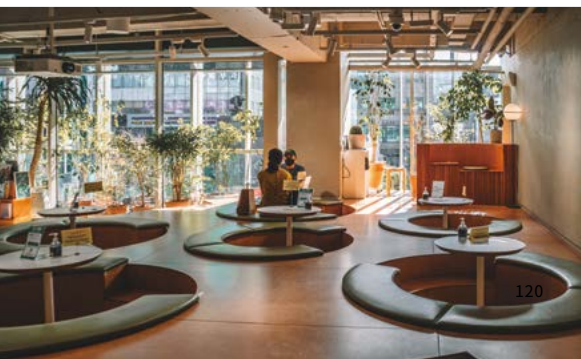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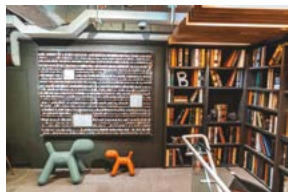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

강남역에서 걸어서 3분, 복잡하고 소란한 그 거리에 LG 유플러스에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이 있다. LG 유플러스에서 운영한다지만 브랜드 로고 하나 눈에 띄지 않는다. 방문객은 그저 전시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으며 원하는 대로 공간을 즐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마다 콘셉트가 다르다. 예를 들면 지하 1층은 사유와 영감의 틈, 5층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틈이다. 건물의 얼굴인 1층에서는 2, 3주마다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 ⓐ 강남대로 426
- ☎ 070-4090-8005
- 🕒 화-토요일 11:00-21:00 (월요일 휴무)
- 📍 @daily_teum





 선릉역

북새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합 문화 공간, 북새즈. 1층에는 인문과 과학 중심의 책방이, 2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다양한 인문, 과학, 비즈 강연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미팅 룸 예약도 가능하다. 건강한 빵을 매일 구워 내는 베이커리 팩토리도 있으니, 책과 함께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해도 좋다.

- ☞ 테헤란로 311
- ☎ 02-501-8804
- 📅 평일 07:00-22:00,
주말 10:00-21:00
- 🌐 booksays.co.kr
- 📱 @booksays_



책 한 장의 여유

책과 함께하는 시간



예전부터 강남에서 가장 서점이 많은 지역은 대치동 일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참고서와 문제집의 수요가 꾸준히 많은 지역이라 전형적인 동네 중형 서점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강남에서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바라는 건 과한 바람일 수 있으나 언제나 창의적 발상으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이들은 존재하는 법. 특별하게 꾸러가는 강남의 책 공간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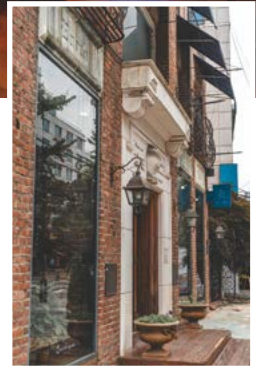
- [A] 테헤란로 440
- [T] 033-648-2760
- [H] 평일 07:30-21:00,
주말 08:30-21:00
- [U] terarosa.com
- [I] [@terarosacoffee](https://www.instagram.com/terarosacoffee)

선릉역

테라로사 포스코센터점

포스코가 보유한 1만여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카페. 포스코 센터 1층에 자리한 테라로사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리노베이션 공간으로 포스코를 상징하는 철과 책,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만나볼 수 있다. 입구부터 테이블, 오브제 등 대부분이 철로 이루어져 있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이라는 매개체로 아늑함도 함께 주고 있다. 개방감 넘치는 공간에서 책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며,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 빵 등도 맛볼 수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도 많이 찾는 곳이다.





 선릉역  역삼역

최인아책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이 오가는 지역인데도 2016년 최인아 책방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책 공간이 없었다니,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최인아 책방의 큐레이션은 독특하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고민할 때’, ‘고민이 깊어지는 마흔 살에게’, ‘작가는 아니어도 글은 쓰고 싶잖아요?’ 등 뽀족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최인아 대표와 지인들이 직접 추천한 책을 모아놓은 서가가 따로 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하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써의 책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2020년에는 역삼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 1층에 2호점을 오픈했다.

선릉점

- A 선릉로 521 4층
- T 02-2088-7330
- H 매일 12:00-19:00
- I @inabooks



GFC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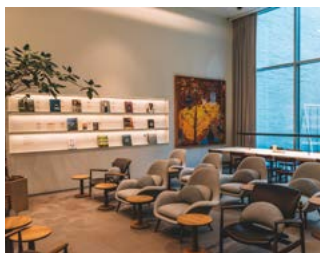
- A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층
- T 02-561-7330
- H 평일 11:00-19:00 (주말 휴무)
- I @inabooks_gfc



청담역

소전서림

소비문화의 중심지인 청담동이 한강과 만나며 그 소란이 잦아드는 언저리에 ‘흰 벽돌로 둘러싸인 책의 숲’인 소전서림(素磚書林)이 있다. 2020년 2월 개관한 소전서림은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개념인 유료 도서관이다. 종일권과 반일권을 끊고 들어갈 수 있다. 소전서림 공간은 1층의 카페, 지하의 메인 홀,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공간인 예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심하게 고른 3만여 권의 장서, 책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다양한 의자 컬렉션, 공간 구석구석을 장식한 예술 작품과 적당한 조명까지.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안락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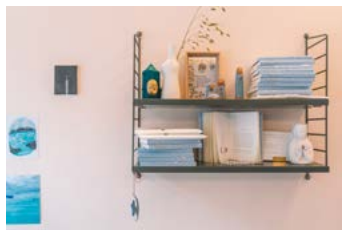


- ☞ 영동대로138길 23 지하1층
- ☎ 02-542-0804
- 📅 화-일요일 11:00-21:00 (월요일 휴무)
- 📍 @sojeonseolim

압구정로데오역

콜링북스

3평 남짓, 환하게 열린 통유리 너머로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규모. 서너 명이 들어가면 어깨가 닿을 것 같은 좁은 공간을 참으로 아무지게 채웠다. 한쪽 벽면엔 책방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식품, 통유리 앞에 놓인 낮은 책꽂이와 탁자를 심분 활용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책과 전시, 굿즈를 선보인다. 책방 이름은 ‘콜링 워터(calling water)’, 즉 마중물에서 가져왔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한복판에서 독서의 마중물과 같은 책 한권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보기를.



- ☞ 선릉로157길 14-4 1층 103호
- ☎ 0507-1410-7876
- 📅 화-수요일 13:00-18:00, 목-토요일 13:00-20:00 (월, 일요일 휴무)
- 📍 @iam.calling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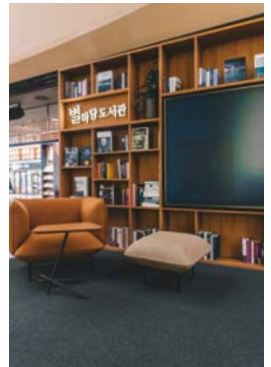
- [A]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1
- [T] 02-6002-3031
- [H] 매일 10:30-22:00
- [I] @starfield.library



 삼성역

별마당 도서관

쇼핑몰 한복판에 자리한 높이 13미터의 서가는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 지하 1층부터 지상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책꽂이엔 약 7만여 권의 책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1층에는 문학과 인문학, 지하 1층에는 취미, 실용 관련 서적이 구비되어 있다. 해외 잡지까지 총 6백여 종의 잡지를 모아 놓은 잡지 특화 서가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별마당 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마치 야외의 광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북 토크, 연주회 등의 행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의자가 놓여 있어 쇼핑을 하다 지친 다리를 쉬어가기에도 좋다.



강남의 건축학개론

아름다운 건축물 산책

쉬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가장 빠르게 달려간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한창 공사 중이고 지하 세계의 변신 역시 예사롭지 않다.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 버릴지도 모를 일. 강남구는 2006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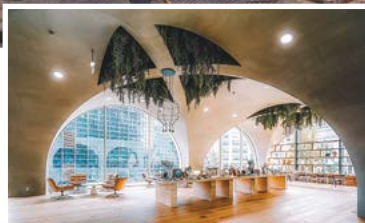


 압구정역

GOLD&WISE THE FIRST (12회 대상)

아치 형태로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지상층, 곡선의 알루미늄 루버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3~5층의 공간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물인 KB금융 업무 시설. 2023년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받은 곳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연면적 3293.34㎡다. 외관은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는 느낌을 줘 하나의 작품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 A 인주로 849



구찌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11회 우수상)



☞ 압구정로 462 ☎ 1577-1921
 ☞ 월-토요일 11:00-20:00, 일요일 11:00-19:00

모름지기 정원이란 낮고 넓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뒤엎은 수직정원이다. 눈이 편안한 열은 초록의 전면 파사드 사이사이로 생기 넘치는 식물이 보인다. 햇살과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움직이며 거리와 그 거리를 걷는 이들에게 생명력을 전달한다. 가로수와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오랜 시간 이 장소에 있었던 것만 같다. 건축물을 통해 도심 속에 자연을 데려다 놓은 구찌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는 제11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담역

D_734 (12회 최우수상)

80년대 지어진 패션 1세대 디자이너의 작업실이자 쇼룸이 새로운 패션브랜드 사옥으로 재탄생했다. D_734는 패션 1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의 흔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다. 외관을 보면 다양한 원단이 연결된 느낌을 준다. 의류 패션 브랜드 사옥답게 외관의 고강도 PC 콘크리트 패널은 가공 원단에서 새로운 패턴이 되어 건물에 입혀졌다. 콘크리트의 건조한 물성은 촘촘한 모듈 패널의 중첩과 빛의 흐름을 통해 물성을 중화하고자 했다.

☞ 청담동 63-4

Tip. 건축 산책 전에 챙겨보세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검색어로 넣고 자료를 찾으면 1회부터 가장 최근까지 수상한 건축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주소와 건물 이름(용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동선을 짜기 전에 살펴본다면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주역

MBC 강남 스마트 센터 (11회 우수상)

MBC에서 처음으로 강남에 만든 MBC 강남 스마트 센터.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11회 우수상을 수상한 MBC 강남 스마트 센터는 외관을 보면 마치 얇은 블라인드를 설치한 느낌을 보여줘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디어 기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디지털을 매체로 물리적 연결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설계되었다. 내부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사무 공간 등 층마다 공간에 맞게 만들어졌다.



 봉은사로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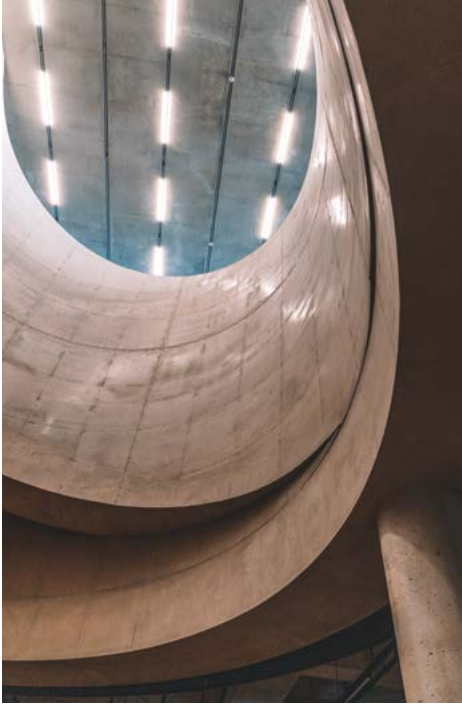
 0507-1427-0018

하림그룹 본사 (9회 대상)

닭고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인 하림. 그 사옥이 신사동 가로수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2016년 8월 완공된 하림그룹 본사는 2017년 한국 건축문화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제9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비거주)을 수상했다. 지상 14층 높이의 건물 1층에는 카페 등 몇몇 상업 시설이 입점해 있다. 멀리서 보면 건물 전면을 가로지르는 유려한 곡선이 인상적이다. 특히 밤에 더욱 눈에 띄는데 곡선을 따라 발광 다이오드(LED)가 설치되어 있어 건물 전면이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 도산대로 130










 압구정로데오역

ST 송은 빌딩 (11회 대상)

2001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으며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스위스의 건축 듀오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청담동에 위치한 송은 문화재단의 ST 송은 빌딩이다. 송은 문화재단은 젊고 유망한 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원래 이 자리엔 규모가 훨씬 작은 송은 아트 스페이스 건물이 있었으며 2018년 건물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되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도산대로의 다른 건물과 다를 바 없는 정직한 사각형이지만 옆에서 보면 찢릴 듯 뽀족한 삼각형이 인상적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표면의 독특한 결이 눈에 들어온다. 콘크리트 외벽에 목판 거푸집을 사용해 소나무의 질감을 표현했다. ‘숨어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松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지상 11층, 지하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중 전시 공간은 지하 2층부터 1층 로비를 지나 지상 2층과 3층까지 이어진다. 지하 2층 전시실에서 지상 2층을 연결해주는 나선형 계단 덕분에 한가운데 시원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생겼다. 더 많은 관람객에게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고자 모든 전시는 무료이다.



-  A 도산대로 441
-  T 02-3448-0100
-  H 월-토요일 11:00-18:30 (일요일, 공휴일 휴관)
-  U songeun.or.kr
-  I @songeun_official

루이 비통 메종 서울 (10회 특별상)



마치 투명한 날갯짓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수 원화성과 학의 동작을 표현한 동래학춤의 우아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는 루이 비통 메종 서울.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 (Frank Gehry)가 설계했다. 내부 디테일에는 샤넬 서울 플래그십을 설계한 건축가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손길이 닿아있다. 단순히 루이 비통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술 전시,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 압구정로 454
- ☎ 02-3432-1854
- ☎ 매일 11:00-20:00

Tip. 건축 산책 전에 챙겨보세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검색어로 넣고 자료를 찾으면 1회부터 가장 최근까지 수상한 건축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주소와 건물 이름(용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동선을 짜기 전에 살펴본다면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빌딩 숲 (10회 최우수상)

공중에 떠 있는 외부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된 EMK 뮤지컬 사옥. 층마다 엇갈리게 건축된 이곳은 뮤지컬 제작자가 주 이용자인 만큼 영감을 줄 수 있는 건축적 요소를 하나하나 배치했다. 각 층의 볼륨을 가로지르고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객석처럼 사람들이 앉고, 기대고, 통행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축적 장치로 설계되었다. 자유롭게 배치된 건축물을 보면 상상력과 새로운 자극을 받아 가기 좋다.

- ☐ 논현로 176



아이와 함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부터 진로 탐색에 도움 될 수 있는 공간까지. 강남은 곳곳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재미와 영감이 가득한 강남으로 아이들을 초대한다.







 압구정로데오역

피규어뮤지엄w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놀 수 있는 피규어뮤지엄.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7개 층 전체에서 피규어를 만나볼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부터 영화 속 마블 캐릭터들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한정판 피규어들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관람해 보자. 1층에는 피규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피규어샵도 마련되어 있다.



-  선릉로158길 3
-  02-512-8865
-  평일 13:00-17:00, 주말 11:00-18:00 (월요일 휴관)
-  figuremuseumw.co.kr

코엑스 아쿠아리움

물속 세상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아쿠아리움. 코엑스 내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자연에 가깝게 연출한 수중환경과 650여 종 4만여 수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초대형 희귀 멸종 위기종 초식동물인 매너티와 17종 110여 마리의 상어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흥미와 유익한 시간을 함께 선사할 수 있다. 상어, 돌고래, 매너티, 물범 등을 형상화한 인형 등을 살 수 있는 기념품샵도 마련되어 있다.

- 📍 영동대로 513 📞 02-700-7200
- 🕒 매일 10:00-20:00
- 🌐 coexaqua.com



국립관세박물관

세관의 역사와 관세 주권과 국익을 지켜온 관세인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관세박물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2000년 8월 서울본부세관 1층에 지어졌다. 박물관 내부가 많이 넓지는 않지만, 홍보영상실, 관세역사관, 관세행정관, 관세외교관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세관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복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으며, 세관이 하는 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본관 1층
- 📞 02-510-1083
- 🕒 평일 10:00-17:00 (주말 휴관)
- 🌐 nlcy.go.kr







 강남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이뤄져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증강현실 체험관이 있으며, 1층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인 이야기방과 유아용 자료를 모아 놓은 그림책나라가, 2층에는 희망창작실, 체험형동화구연실, 공간상상, 공간희망, 전시실 등이 있다. 3, 4층은 국내·외 아동문학상 수상작, 연구자료,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동화책 등을 비치한 공간과 증강현실 그림책방이 있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상상의 나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다.



-  테헤란로7길 21
-  02-3413-4800
-  매일 09:00-18:00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휴관)
-  ncy.go.kr

 대청역

일원라온영어도서관

관내 최초 구립 영어도서관. 일원스포츠클럽문화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일원라온영어도서관은 픽처북, 팝업북, 챗터북 등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단계별로 볼 수 있는 영어 원서 1만 8,000여 권과 영화 DVD 800여 점을 비치했다. 또한 원어만 선생님과 크리스마스 문화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영어 관련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아이들과 꼭 참여해 보자. 도서관 옆에는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실내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어 책을 읽은 후 아이들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다. 예약 후 방문하길 추천.

A 영동대로 22, 지하 1층

T 02-6712-0595

H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월요일, 공휴일 휴관)

U library.gangnam.go.kr/englib



 대청역

일원에코파크

하수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탄천물재생센터를 재탄생시켜 2017년 새롭게 오픈한 공원. 공원 내에는 테니스장, 풋살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온실 식물원과 녹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 식물원의 경우 다양한 식물을 살펴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친환경 페스티벌도 이곳에서 개최되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좋다.



A 일원동 4-12

T 02-3410-9738

한옥의 미를 만나다

한옥 공간

‘강남에 이런 곳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공간들이 있다. 바로 한옥. 높은 빌딩 사이, 한국의 아름다운 멋을 보여주는 한옥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한적함을 느껴보길 바란다.



 수서역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멀리서부터 한옥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한옥도서관에 맞게 넓은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전통 놀이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율현관의 경우 천자문 등 전통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전통 물품도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장이 되는 곳이다. 자양당에는 책들이 있으며 햇볕이 잘 드는 복도에는 성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한옥에서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해보자.

- A** 자곡로7길 3
- T** 02-2226-5930
- H**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월요일 휴관)
- U** hchildlib.gangnam.go.kr

수서역

필경재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증손 이천수가 건립한 500년 된 고택. 그의 증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곳으로 현재 한정식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7년 전통건조물 1호로 지정되었으며,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한국의 맛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니 천천히 고택을 둘러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멋을 이곳에서 느껴보고 가길 바란다.

- ☐ 광평로 205
- ☎ 0507-1472-2116
- ☎ 매일 12: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8:00



수서역

H.ORM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물을 발견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한옥 갤러리 카페. 'Hours of realizing myself' 나만의 감각을 찾아가는 시간이란 뜻을 지닌 이곳은 들어가는 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다.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 또한 작품처럼 아름답다. 음료 종류도 커피, 에이드, 티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디저트도 함께 판매한다.

- ☐ 현릉로571길 30-1
- ☎ 0507-1326-9148
- ☎ 화-일요일 12:00-20:00 (월요일 휴무)
- ☐ @h_orm_cafe





M
S

TAM
BUS
MIN
712

SHOWERY BODY WASH
BIGALICO
tamburins

SHOWERY BODY WASH
BIGALICO
tamburins

SHOWERY BODY WASH
BIGALICO
tamburins

하늘 높게 뻗은 빌딩만큼 그 안에 많은 기업이 있는 강남.
강남은 패션, 금융, 유통, 문화 등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으며,
기업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Brand GN

강남의 브랜드

브랜드를 경험하다

브랜드 체험 공간


강남은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럿 있다. 제품 소개를 넘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공간부터 단순 은행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닌 쉼터 뱅크를 만들어 가는 곳까지. 강남의 브랜드 공간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역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느끼는 쿠킹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는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간단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과 카페, Deli가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4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단 한 팀만을 위한 다이닝 공간인 그린하우스가 있다. 그린하우스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로 메뉴를 차려내며,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요리와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A 압구정로46길 46

 T 02-513-2900

 H 화-일 12:00-21:00 (월요일, 명절 연휴 휴관)

 U dive.hyundaicard.com/web/cookinglibrary/spaceMain.hdc





©이디야커피랩



 **연주역**

이디야커피랩

프랜차이즈 카페 이디야가 운영하는 공간. 창립 15주년을 맞아 2016년 4월에 새롭게 선보인 이디야커피랩은 이디야 커피연구소를 전신으로 하는 만큼 커피 연구와 문화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2개 층에 걸쳐 약 500평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스페셜티 커피부터 시작해 다양한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고객 맞춤형 스페셜티 원두와 디저트를 폭넓게 선보인다. 메인 바에서는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추출법에 맞춰 다양하게 시음해 볼 수 있다.

-  논현로 636
-  02-545-6467
-  매일 07:30-02:00
-  ediya.com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예술,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자동차 문화 체험실이다. 1, 2층은 Reflection in Motion 디자인 전시가 3층은 제네시스 전시, 4, 5층은 현대자동차 전시로 이뤄져 있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전문가용 드로잉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의 외장 또는 내장을 디자인하고 색칠해 보는 어린이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직접 시승도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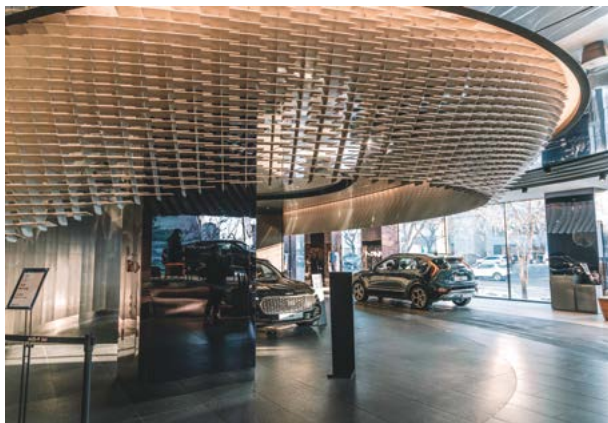
- A 연주로 738
- T 1899-6611
- H 매일 09:00-21: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관)
- U motorstudio.hyundai.com/seoul
- I @hyundai.motor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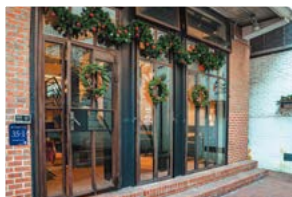
Kia360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컬러인 미드나잇블랙과 폴라화이트가 적용된 7,553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Kia360. 내부로 들어서면 기아의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만나볼 수 있는 Brand & Design Zone, 다가올 EV시대와 커넥티드 모빌리티 라이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Ev Life Zone, 나만의 차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Kia User Zone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차량의 경우 시승도 해볼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꼭 방문해 보자.

- [A] 압구정로 417
- [T] 02-518-0360
- [H] 매일 09:00-21:00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휴관)
- [U] kia360.kia.com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지로 불리는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도쿄, 맨체스터, 암스테르담, 코펜하겐의 뒤를 이어 10번째로 서울에 오픈했다. 자전거와 관련된 용품들도 살 수 있지만 이곳이 자전거인들의 아지트가 된 이유는 라파 사이클링 클럽(RCC) 때문. 자전거 라이딩 및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모든 클럽하우스에서 무료 커피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최상급 자전거 역시 대여할 수 있다.

- [A] 압구정로10길 35-1
- [T] 02-515-2758
- [H] 평일 11:00-20:00, 주말 10:00-19:00
- [U] rapha.cc/kr/ko

🚗 노현역

🚗 압구정로데오역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전자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쇼룸. 실제 집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국내 최초 빌트인 가전 전시장인 이곳에서는 빌트인 가전을 직접 체험해 보고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문화 공간이다. 세계 최고의 건축상인 프리츠커 어워드 수상자인 톰메인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에서 받은 영감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공간으로 가전을 넘어 하나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도 진행하며, 쿠킹 스튜디오에서는 유명 셰프에게 직접 요리도 배울 수 있다. 노현 쇼룸에 이어 청담 쇼룸도 오픈했으니 참고할 것.

노현쇼룸

- 📍 A 학동로 133
- ☎ T 02-3777-6600
- 📅 H 월-토 10:30-18:30 (일요일 휴관)
- 🌐 U signaturekitchen.co.kr
- 📱 I @signature_kitchen_suite

청담쇼룸

- 📍 A 압구정로60길 13
- ☎ T 02-3777-6700
- 📅 H 월-토 10:30-18:30 (일요일 휴관)
- 🌐 U signaturekitchen.co.kr
- 📱 I @signature_kitchen_suite



플레이스 원

기존 은행 건물의 고정 관념을 탈피한 플레이스 원. KEB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은행 업무를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 여가 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히 건물 외관을 보면 돌출된 원형 아트 디스크들이 입체감을 보여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1층 로비에서 커피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지하 1층에서 마실 수 있다. 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 공간이며, 6층에서는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어 플레이스 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지하 1층과 6층에서 보내길 바란다.

☞ 영동대로96길 26

☎ 02-545-1111

☑ 평일 09:30-15:30 (주말 휴관)



브랜드의 가치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 매장인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에는 의류부터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자리하고 있다.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문화를 강남의 한 공간 안에서 느껴보자.



압구정역

시논 플래그십스토어 도산

도산공원 바로 옆에 있는 시논 플래그십 스토어. 주변의 일상 모티브나 회화, 영상, 오브제 등의 다양한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의 무드로 재해석한 브랜드로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의 옷을 선보인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총 2층 규모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오브제와 어우러져 아늑함을 느끼게 해준다. 시논에서 디자인한 다양한 옷들을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간도 예뻐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 압구정로42길 47
- 0507-1341-8410
- 매일 12:00-20:00
- @sinoon.dosan

압구정로테오역

호텔드앤유

유럽의 작은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호텔드앤유. 도시와 여행을 모티브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부티크 호텔 콘셉트로 꾸며져 있다. S/S와 F/W 컬렉션의 모티브가 되는 해당 도시에 맞춰 호텔 모습을 매년 새롭게 구현해 계절마다 옷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호텔드앤유에서 여행을 마친 후 카페에서 여유로운 커피 한 잔 하고 가길 바란다.



- 도산대로55길 39
- 02-545-8284
- 화-토요일 11:00-20:00
(일, 월요일 휴무) andyou.style
- @hotel_de_andyou

입구정로데오역

분더샵 청담

신세계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패션 전문 편집 매장인 분더샵의 미학과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 등 많은 매장이 있지만 청담동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분더샵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층별 스타일링 제안도 다채롭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응대도 가능해 해외에서도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갤러리의 역할도 하는 공간이라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 ☐ 압구정로60길 21
- ☎ 02-2056-1234
- 🕒 매일 11:00-20:00
- 🌐 boontheshop.com



한티역

더콘란샵코리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더콘란샵. 리빙 편집샵의 시초격인 더콘란샵은 영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테렌스 올비 콘란 경이 1974년 처음 설립한 곳으로 세계 12 번째 매장으로 한국에 오픈했다. 매장은 약 1천 평 규모로 가구와 홈데코, 주방용품, 식기, 침구, 책, 잡화까지 해외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의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자체 브랜드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도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잡아 방문하길 바란다.

- ☐ 도곡로 401
- ☎ 02-531-2591
- 🕒 월-목요일 10:30-20:00, 금-일요일 10:30-20:30
- 🌐 conranshop.kr
- 📍 @theconranshop.korea



 신사역

딤편딤긤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

파리의 아늑한 가정집을 연상케 하는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딤편딤긤의 플래그십 스토어. 파리 본점을 포함해 런던, 로마, 뉴욕,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단독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1층은 딤편딤긤의 향수와 향초 전체 라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식당, 부엌, 세탁실, 거실, 욕실 등의 공간으로 구분해 딤편딤긤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져 있다.

- A 가로수길 15
- T 02-3446-7494
- H 매일 11:00-21:00
- I @diptyque



신사역

탬버린즈 신사 플래그십스토어

제품뿐만 아니라 향, 패키지 디자인, 공간까지 하나하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가치를 담은 공간. 코스메틱 브랜드인 탬버린즈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에서는 탬버린즈의 제품과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까지 만날 수 있다. 특히 공간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오브제로 장식해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어 MZ 세대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다. 가로수길에 있어 다른 곳들과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다.



신사점

- [A] 압구정로10길 44
- [T] 02-511-1246
- [H] 매일 12:00-21:00
- [U] tamburins.com
- [I] @tamburinsofficial



도산점

- [A] 압구정로46길 50
하우스 도산 4층 탬버린즈
- [T] 070-4128-2124
- [H] 매일 11:00-21:00
- [U] tamburins.com
- [I] @tamburinsofficial





강남 문화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에 섰다.

K-컬처의 중심에 강남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타 사무실의 집결지이며 관련 뷰티숍, 패션 편집숍 등 수많은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유행을 선도하는 국내외 셀러브리티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강남에 집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본 섹션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G(Gangnam)-콘텐츠를 큐레이션 한다.

Contents GN

강남의 콘텐츠

여기가 거기인가요? G-콘텐츠의 성지

전 세계의 수많은 '덕후'들이 강남을 찾는다. 그들을 매료시킨 K-문화가 탄생한 곳이기도 그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들어서는 순간, 환호성이 터질 G-콘텐츠의 성지로 안내한다.



케이타운포유

케이타운포유는 전 세계 240개국의 64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매출의 90%를 해외로 수출하는 K-POP 글로벌 온오프라인 No.1 통합 플랫폼이다. 2023년 5월에 문을 연 코엑스점은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K-POP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층은 각종 음반, 도서, 굿즈 등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숍으로, 3층은 녹음실, 댄스홀, 연습실을 갖춘 트레이닝 센터로, 4대 기획사 출신의 트레이너들을 통해 K-POP 꿈나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Ktown4u Coex Academy로 운영되고 있다. 4층은 카페로, 아티스트 팝업이 열리면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는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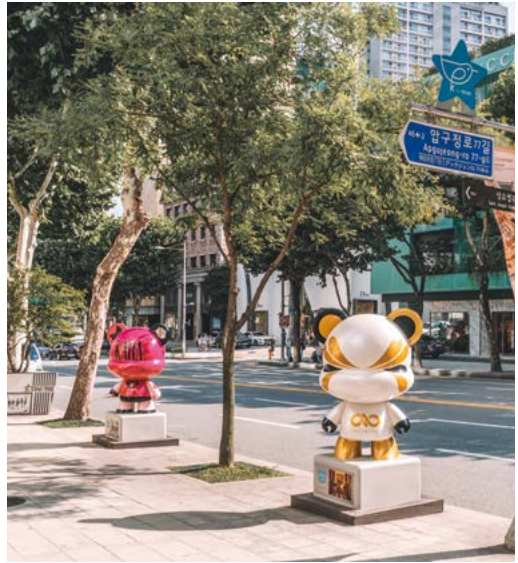
- [A] 영동대로 513 코엑스 아티움 2-4층
- [T] 02-552-9877
- [H] 2층 매일 10:00-20:00, 3층 매일 12:00-22:00, 4층 매일 11:00-20:00



KstarROAD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장소는 시간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비틀즈의 앨범에 등장하는 애비로드처럼 말이다. ‘강남스타일’로 시작된 강남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곳으로 인식되며 현재 진행형이다. KstarROAD는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도시 브랜드 프로젝트로, 스타들이 자주 들리는 카페와 레스토랑, 뷰티숍, 쇼핑 장소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보다 쉽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정된 문화거리이다. 특히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총 17개의 한류스타 아토틀이 ‘강남돌’이 세워져 있으며 강남돌하우스에서 아토틀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입구정로 339-2



강남역

강남스퀘어 광장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위치한 강남스퀘어 광장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끊임없이 K-POP 영상이 송출되고 포토존을 설치, 벤치를 리뉴얼 하여 머무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광장은 K-컬처 상시 공연장으로 운영된다.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남역인 만큼 K-POP뿐만 아니라 국악, 태권도 등의 문화 공연을 유치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제공한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K-컬처는 무한재생 중이다.

강남대로 396 (강남역 11번-12번 출구 사이)



강남역

국기원

태권도 보급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된 국기원은 현재 태권도세계본부로, 약 1억 5천 명에 달하는 태권도 가족들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국기원의 주요 사업은 송풍·단 심사, 지도 자양성, 태권도 학술 연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사업 등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기원 뒤편에 위치한 국기원박물관에서 국기 태권도의 역사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강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여서 조용히 산책하기에도 좋다.

테헤란로7길 32

02-567-1058

변화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최근 뷰티 업계의 핫이슈는 ‘친환경’, ‘자연주의’, ‘비건’이다. 강남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검증된 ‘클린 뷰티’를 엄격한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면의 아름다움에서 내면 속 깊은 아름다움까지, 사람과 환경을 함께 생각한 가치 있는 변화를 꿈꾼다.



신사역

가로수길레이블씨

레이블씨는 ‘친환경’, ‘비건’, ‘자연주의’ 등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화두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클린 화장품을 큐레이션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클린 뷰티 전문 편집숍 레이블씨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의 클린 뷰티 속에서 검증된, 피부에 자극이 적고 환경에도 좋은 제품들로 구성하고 있어 화장품의 화학성분에 민감했던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모았다.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 있는 영국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뱀포드(BAMFORD)는 디퓨저에서 클렌징, 기초, 바디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갖춰져 있으며 비건 향수로 유명한 메종루이마리(Maison Louis Marie), 프랑스 자연주의 클린 뷰티 브랜드 아슬루시옹(Absolution) 등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 [A] 가로수길 54
- [T] 02-544-1080
- [H] 매일 11:00-20:00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세계 최고의 의료 관광도시 강남은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압구정역에 위치한 센터로 들어서면 먼저 인포데스크에서 언어권별 전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항 픽업에서부터, 통역, 병원 안내, 호텔 예약, 주변 관광지 안내까지 의료관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한다. 프라이빗 한 힐링 타임을 제공하는 힐링존에서는 실제 의료기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룸, 공유오피스가 있어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장소로도 활용 가능하다.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무인 로봇카페도 운영되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에서 쉬어 가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다.

- 📍 압구정로 161 강남관광정보센터 1층
- ☎ 02-1661-2230
- 🕒 평일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medicaltour.gangnam.go.kr/main.do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따뜻한 빛을 간직한 그릇 ‘랜턴’이라는 메타포를 사용, 1966년부터 이어져 온 설화수의 역사를 담고 있다. 지하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건축물 전체가 브론즈 빛을 머금고 있으며 설화수가 가진 동양적인 운기를 건축에 녹여냈다. 지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인 옥 호박, 백자를 활용한 특별한 도구들로 효능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파, 1층은 1966년부터 이어져 온 설화수의 정신을 담은 헤리티지룸, 2층은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신제품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부띠끄, 3층은 설화수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컬처라운지, 4층은 컨템포러리 한방 밸런스 스파, 5층은 청명한 자연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야외라운지로 이루어져 있다.

- 📍 도산대로45길 18 ☎ 02-541-9270
- 🕒 화-일요일 10:00-19:00 (월요일 휴무)
- 🌐 sulwhasoo.com/kr/ko/flagship/dosan/index.html



압구정로테오역

디어달리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달리아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100% 비건 브랜드 디어달리아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도산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색조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물성 재료 사용을 반대하고 자연 원료 사용으로 피부에 자극 없는 촉촉함을 유지하는 제품들을 선보인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달리아꽃에서 느껴지는 청초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마음껏 살려 여기저기 촬영 스팟이 가득하다. 1층은 디어달리아의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뷰티 아틀리에, 2층은 셀럽들에게도 인기 있는 브런치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비건 카페 & 베이커리로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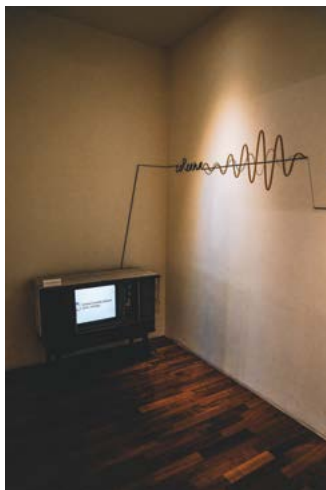
- ☐ 도산대로45길 14
- ☎ 02-547-0502
- ☎ 매일 11:00-20:00



스페이스 씨

코리아나 화장품이 설립한 복합 문화 공간.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이 공간에는 한국의 전통 화장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인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과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코리아나미술관이 있다. 특히 코리아나미술관은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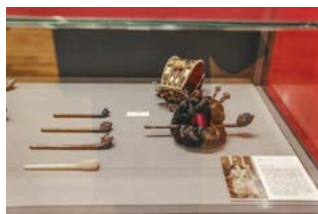
- A 연주로 827 T 02-547-9177
- H 화-금요일 11:00-18:00 (토-월요일 휴관)
- 전시에 따라 변동 가능
- U spacec.co.kr
- I @coreanamuseum



©한국미니어처모토



©코리아나화장박물관



re: *Mark's*

← GOLF PARKING P

↑ ONKAGE SUSHI MAI

→ restaurant & cafe *re: Mark's*

→ 100% LOCAL & JAZZ vin-ga

re: *Mark's*
CAFE
ALL DAY
BRUNCH
DINING
TAKEAWAY

re: *Mark's* CAFE
restaurant & cafe

BREAKFAST 8:30 - 10:30
LUNCH 11:30 - 10:00 CLOSED
BRUNCH 10:00 - 10:00

ALL DAY
BRUNCH
DINING
TAKEAWAY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다! 그럼 강남으로 오라.

아니, 어쩌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질지도 모른다.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뉴와 음식점을 선택하는 그 시간은 분명 행복한 고민의 시간일 터.

카페, 디저트와 베이커리, 브런치, 한식과 세계 요리,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음식점과 백년가게에 등재된 음식점, 채식, 그리고 술 한 잔.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Tasty GN

강남의 맛



Cafe

일상의 틈, 일상의 심 한잔



©맥파이엔타이거 신사 티룸

강남은 내로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격전장이다. 그 물량과 속도의 공세 속에서도 한 잔 한 잔 정성스레 커피를 내려주며 공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로수길과 도산공원 일대에 랜드 마크라고 볼릴 만한 카페가 여럿 있고 까마득히 높은 빌딩을 걷다가 ‘여기에 이런 카페가?’ 싶은 공간을 만나기도 한다. 진한 에스프레소로 오후를 깨우는 직장인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드립 커피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의 발길이 교차하는 여기, 강남이다.

 신사역

맥파이엔타이거 신사 티룸



좋은 차와 차를 닮은 삶을 소개하는 맥파이엔타이거 신사 티룸.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전문가가 내려주는 티와 페어링이 좋은 다식을 코스로 즐길 수 있다. 계절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식과, 차를 페어링하는 <계절의 티코스>로 차를 즐기는 즐거움을 전한다. 티코스에서는 가벼운 웰컴 티로 시작해 차에 집중하는 순간을 가져보고, 차를 뒤는 등 다채로운 차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이 계절에 가장 맛있는 재료를 활용한 티푸드와 함께 차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안한다. 맥파이엔타이거라는 명칭은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새해에 주고받던 민화 '호작도'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선조들이 예술을 친근하게 일상 속에 녹여온 것처럼 차도 일상의 문화로 이어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A] 논현로 153길 44 클레어스서울 2F [T] 010-5723-4023
- [H] 수·일요일 13:00~20:30 (월, 화요일 휴무) [I] @magpie.and.tiger
- [U] magpie-and-tiger.com

압구정역

마일스톤 커피



들고남이 심한 가로수길을 2014년부터 든든히 지키고 있는 카페. 아주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 아니면 상당히 붐비지만 항상 친절해서 주문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다. 대표 메뉴는 라떼에 쫄쫄한 크림이 올라가는 아인슈페너. 크림이 많이 달지 않아 커피와 부드럽게 잘 어울린다. 커피만큼 디저트에도 신경을 쓰는데 사과와 계피가 듬뿍 들어간 애플 크럼블이 인기가 많다. 매장에서 먹고 가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제공한다.

A 논현로159길 49 T 0507-1425-1195 H 매일 10:00-21:00
U milestonecoffee.kr I @milestone_coffee



A 도산대로45길 16-8
T 010-7774-1484
H 매일 10:00-21:00
I @camelcoffee_kor



압구정로데오역

카멜커피 도산점



도산공원 초입에 자리한 카멜커피. 앤틱한 인테리어가 이곳이 커피 맛집임을 알려준다. 달콤한 크림과 라떼의 씩씩한 맛의 조화로 카멜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카멜커피가 이곳의 인기 메뉴. 도산점인 만큼 도산 커피도 판매하니 커피를 좋아한다면 마셔봐도 좋다. 다른 음료에 비해 커피 메뉴가 많지만, 티 종류와 디저트도 몇 개 있으니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도 이곳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하림 본사 빌딩과 스타벅스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면 아직 카페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딘가에서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겨온다. 그 향기의 끝에 커피 휘엘이 있다. 카페 입구에 압도적 규모의 배전기가 놓여 있어 시선을 사로잡고 실내와 좌석이 넉넉하다. 매장에서 직접 원두를 볶는 카페인만큼 드립 커피를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원두의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유자청이 들어간 유자 아메리카노는 휘엘에서만 마실 수 있는 여름의 맛.

A 논현로149길 62 T 0507-1407-8138
H 평일 08:30-21:00, 주말 12:00-20:30
U coffeefiel.com I @coffeefiel

신사역

커피 휘엘



스탠다드 시스템



도산대로에서 한 발자국 들어갔을 뿐인데 온갖 소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커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섬세하고 엄격하게 고른 원두가 10종 이상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스탠다드 시스템에서만 마실 수 있는 대표 메뉴는 토종 벌집꿀이 듬뿍 올라간 허니비 화이트. 먼저 벌집꿀을 한입 베어 입에 머금고 스탠다드 다크 원두로 내린 라떼를 한 모금 마시는 게 바리스타의 추천.



- ☐ 선릉로148길 48-5
- ☎ 0507-1493-1922
- ☎ 매일 11:00-19:00
- ☎ @standardsystem.coffee



구테로이테

구테로이테는 독일어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회색조의 차분한 실내는 넓고 쾌적하다. 매장 이름과 같은 메뉴인 구테로이테는 버터스카치 베이스에 쿠키와 크림이 올라가 달콤한 에스프레소 음료. 서울의 인상을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한다. 대표 메뉴 5잔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클래식 코스’는 커피 애호가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계절에 따른 한정 메뉴와 그에 맞춘 커피 코스도 마련하기 때문에 매 계절마다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다.



- ☐ 선릉로131길 16 1층
- ☎ 02-518-1117
- ☎ 매일 08:00-22:00
- ☎ @gute_leute_

그레이 그리스트밀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에 의한, 한 잔의 스페셜티 커피를 만든다는 그레이 그리스트밀. 국가대표 방준배 바리스타가 직접 선택하고 개발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는 카페다. 아메리카노, 브루잉, 라떼, 아포가토 등 4가지 음료 타입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나만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커피를 마셔 보고 마음에 들면 원두도 구매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 압구정로2길 15 ☎ 02-546-8902
 ☒ 매일 11:00-20:30 📱 @gray_gristm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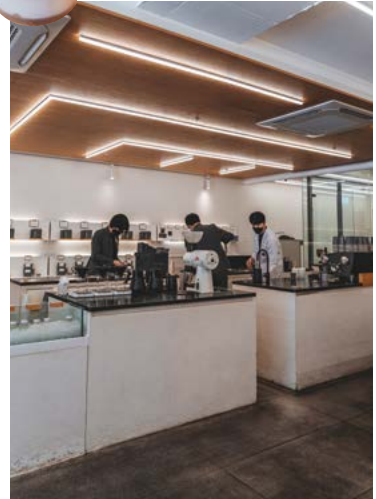


스몰 배치 서울



스몰 배치는 멜버른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로스터리. 추천하는 커피는 호주에서 시작된 커피인 플랫 화이트. 포도, 자두, 레몬 등의 신맛과 열은 초콜릿 향이 나는 원두인 '캔디맨'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 우유와 잘 어울린다. 입술과 혀에 닿았을 때 매우 부드럽고 라떼나 카푸치노보다 진하고 고소한 맛. 단독 주택을 개조해 만든 공간은 좁지만 해가 잘 들고 아늑하다.

☐ 언주로168길 6-7 ☎ 070-7554-7777
 ☒ 평일 10:00-17:30, 토요일 11:00-18:00 (일요일 휴무)
 📱 @smallbatvh.seoul



압구정로데오역

읍천리382

도시 속 농촌 카페를 콘셉트로 한 읍천리382가 압구정에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읍천리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실제 지명으로 도심 속에서도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나누는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주의 밤, 예천의 사과 등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농민들과 지역 상생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에 18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소한 미숫가루와 싱싱한 과일이 듬뿍 들어간 라떼, 그리고 볼륨감 있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적당한 가격으로 최고의 식자재를 사용한 메뉴들을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 매장 내에 시골 농가에서나 봄직한 농기계들이 놓여 있어 레트로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촬영 스폿으로도 인기가.



- A 언주로168길 10
- T 0507-1428-0390
- H 매일 08:00-23:00
- I @eupcheonri_official

신사역

샌드커피 논탄도 신사



300도가 넘는 모래의 열기로 끓여 내는 튀르키예 스타일의 커피와 물소의 유지방을 굳혀 크림으로 만든 카이막을 맛볼 수 있는 샌드커피 논탄도 신사. 작은 체즈베 주전자에 커피 원두와 물을 넣고 끓인 후 따로 필터로 거르지 않고 바로 따라주는 체즈베 커피는 가루가 그대로 컵에 가라앉아 있어서 상당히 진하다. 따로 요청하면 가루를 걸러주기도 한다. 카이막은 2시 30분 이후부터 주문할 수 있으며 식빵과 꿀이 함께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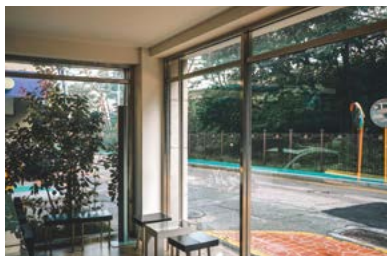
- A 도산대로17길 35 1층
- T 02-542-0206
- H 일-목요일 11:00-22:00 금, 토요일 11:00-23:00

삼성중앙역

토치커피 삼성점

선정릉을 향해 열린 통창이 시원하다. 낮은 음악이 흐르는 군더더기 없는 실내는 온전히 커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지에 가서 원두를 받아오고 직접 볶아 도매로 납품까지 하니, 커피 맛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필터 커피의 원두 종류는 수시로 달라지며 커피와 함께 산지, 농장 등 원두 정보가 적힌 카드를 내어준다. 싱글 오리진 원두는 매장과 온라인에서 100g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 A 봉은사로68길 41 1층 T 02-555-0224
- H 평일 08:30-20:00, 주말 12:00-19:00
- I @to.ch_ed.by.t



펠트 커피 도산공원점



펠트 커피 도산공원점은 강렬하다. 외관도 실내도 온통 검은색 일색이다. 디자이너 브랜 드 준지(Juun.J)와 한 건물을 사용하는데 우선 중정이 눈에 띈다. 공중에 떠 있는 화분이 독특하다. 카페 내부로 들어가면 커다란 창이 중정을 향해 나 있고 모두가 중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신다. 원두에 집중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는 펠트 커피답게 커피 메뉴는 기본에 충실하다. 준지의 이미지를 재해석해 블렌딩한 원두는 도산공원점만의 특별한 점.

- ☐ 언주로164길 23 ☎ 070-7756-3145
- ☒ 매일 11:00-21:00 ☒ feltcoffee.com
- ☐ @felt_seoul



번커 컴퍼니 압구정점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하남에 위치한 로스터리까지 찾아가는 편이 있을 정도인 번커 컴퍼니. 압구정점은 압구정역에서 로데오거리로 가는 길목, 빌라와 아파트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 비교적 조용한 골목에 위치하며 단독 주택을 개조해 2층까지 매장을 넓게 사용한다. 커피를 주문하면 원두의 설명이 적힌 카드를 함께 주는데 산지, 품종 등 간단한 정보뿐만 아니라 블렌딩할 때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 등 바리스타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 탄산수를 함께 내어주는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 ☐ 언주로167길 23 단독 주택 1, 2층 ☎ 0507-1357-1456
- ☒ 매일 08:30-21:00 ☒ bunkercompany.co.kr ☐ @bunker_company



Dessert 달콤한 강남 디저트 로드

골목을 가득 메우는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내음, 입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바닐라 크림의 달콤함. 빵과 디저트는 이제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강남엔 멀리서 일부터 예약까지 해서 먹고 싶은 빵집, 디저트 전문점이 구석구석 숨어있다. 특히 프랑스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이 유난히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역삼역

바게트 케이



‘이런 곳에 빵집이?’ 싶은 역삼동 뒷골목에 위치한 블랑제리. 매장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바게트와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가 모두 맛있다. 바게트는 바삭한 에빠 바게트, 부드러운 말제르브 바게트, 쫄깃한 몽쥬 바게트 3종류가 있다. 의외의 인기 메뉴는 바나나 푸딩.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바게트에 잼처럼 바나나 푸딩을 발라 먹으면 새로운 맛의 발견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아침 6시 30분부터 영업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근처 직장인에게 참 다정한 빵집이다. 멀리서 오로지 바게트만을 위해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는다.



[A] 테헤란로34길 21-10 [T] 02-567-9501
[H] 매일 06:30-19:30 [I] @baguette_k





입구정역

만나당



K-컬처의 인기 속에 K-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다. 그 선두에 약과가 있고 온라인 물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약켓팅’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만나당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약과’. 만나당은 1963년부터 왕이 먹던 디저트 궁중병과를 만들어온 황문철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래가게다. 오래가게는 노포의 다른 표현으로 오래된, 오래가기를 희망하는 가게에 주어지는 명칭이다. 조청 맛이 진해 꾸덕하고 쫄득한 질감이 특징인 만나당의 약과는 지금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 노트드와도 협업하여 메뉴를 선보였다. 약과 외에도 약과 반죽에 소를 넣어 튀겨낸 만두과, 두툼떡과 한과도 만나당에서 맛볼 수 있다.

A 논현로175길 61 1층 101호

T 0507-1327-3312

H 월-토요일 10:00-18:00 (일요일 휴무)



입구정역

압구정공주떡



흑임자 인절미로 유명한 압구정공주떡은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필수 코스로 손꼽힌다. 1965년 대전에서 문을 연 공주떡집의 서울 분점에 해당한다. 매일 직접 떡을 만들어 13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 보는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반응도 뜨겁다. 밤, 대추, 잣, 콩, 수수, 팥, 호박을 넣어 영양까지 생각한 영양떡은 아침 대용으로 인기이며 최근 가장 핫한 제품은 흑임자 가루가 흘러내릴 정도로 가득 올려진 흑임자 인절미다. 압구정공주떡의 대표 메뉴들을 모아 놓은 선물 세트, 답례용, 이바지용으로도 주문이 많고, 명절에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살린 탓에 부모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A 논현로161길 10

T 02-516-3643

H 매일 06:00-23:55









 압구정로데오역

노티드 청담



노티드의 우유 생크림 도넛 한입이면 모든 걱정이 크림 녹듯 사라져 녹아내릴 것만 같다. 빵보다 더 두꺼운 크림이 느끼하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콤하고 진하지만 묵직하지 않고 깔끔하다. 쇼케이스를 가득 채운 다양한 도넛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도넛 외에도 스콘, 쿠키, 크루아상, 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카페 노티드 청담은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간, 단순히 도넛 전문점이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된 노티드 도넛의 1호점. 입구 쪽에는 노티드의 '스마일'과 '슈가 베이' 캐릭터로 만든 발랄한 굿즈가 눈길을 끈다. 좌석은 2층까지 넓게 준비되어 있다.



-  A 도산대로53길 15 1층
-  T 0507-1426-9399
-  H 매일 09:00-21:00
-  I @cafeknotted





쇼토

다채로운 계절 과일을 주재료로 하는 쇼트케이크를 맛볼 수 있는 쇼토. 신라호텔 출신의 파티시에가 오너 셰프를 맡고 있다. 쇼토의 쇼트케이크는 시트가 조밀하고 부드러우며 크림은 많이 달지 않아 과일의 단맛과 잘 어울린다. 딸기 쇼토가 가장 유명하고 여름엔 제주도의 농원에서 직접 받아 오는 애플망고로 만든 애플망고 쇼토가 인기가 많다. 매장은 좁은 편이며 매일의 케이크 라인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 압구정로18길 14-6 1층
- ☎ 02-512-3625
- 🕒 수-토요일 12:00-21:00 일, 월요일 12:00-20:00
- 📱 @shoto_patisserie





 강남구청역

르뱅룰즈

담백하고 건강한 식사 빵을 사랑한다면 르뱅룰즈만한 곳이 없다. 지금의 르뱅룰즈를 있게 한 빵은 바로 사워도우. 밀가루, 물, 소금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감칠맛과 고소함을 자랑한다. 기본인 르뱅 사워도우부터 통밀 70%, 카카오닙스, 크랜베리 월넛 등 다양한 사워도우 빵을 맛볼 수 있다. 사워도우는 보통 하프사이즈로 판매하며 예약도 가능하다. 사워도우, 바게트, 치아바타로 만든 샌드위치 종류도 다양하며 그 중 잠봉뵈르가 가장 인기가 많다. 강남구청 본점 외에 선릉를 앞에도 지점이 하나 더 있다.



- ☐ 선릉로 660 브라운스톤 레전드 1층 105호
- ☎ 0507-1389-1270
- ☎ 매일 09:30-20:30
- ☎ @levain_rules

씨세종



여름엔 초당옥수수, 가을엔 반건식 에클레어 등 계절마다 디저트 구성이 조금씩 바뀌지만 공들여 닦은 대리석처럼 빛나는 바닐라 타르트만은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다. 은은한 단맛이 나는 바닐라 아몬드 크림은 바닐라의 풍미는 살리고 느끼함은 완벽하게 잡아냈다. 파트 사블레 부분은 나도 모르게 포크에 쥘 손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쫄쫄하다. 매장엔 6인용 테이블 하나뿐이라 먹고 가기 위해선 기다려야 할 때도 자주 있다. 대표 메뉴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역시 디저트만큼이나 인기가 많다.

- [A] 연주로146길 39 주영빌딩 1층
- [H] 목·일요일 12:30-18:30 (월·수요일 휴무)
- [I] @cettesaison_official



매봉역

김영모 과자점 도콧타워점



여중간한 실력과 마음가짐으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과인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김영모 명장은 무려 40년을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들어왔다. 2000년 개점한 김영모 과자점 도콧타워점은 현재 운영 중인 매장 중 가장 오래된 지점. 워낙에 빵의 종류가 많아서 첫 방문이라면 매장 안을 방황하게 될지도 모를 일. 그럴 땐 ‘김영모 과자점에서 꼭 먹어봐야 할 BEST 7’ 안내판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중에서도 몽블랑은 1993년 출시된 이후로 무려 670만 개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다.



- [A] 연주로30길 10 현대비전21
- [T] 02-3460-2005
- [H] 매일 08:00-22:30
- [U] k-bread.com



페르에피스

김영모 과자점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로 김영모 과자점 도콧타워점과 붙어 있다. 그다지 넓지 않지만 층고가 높아 답답하지 않고 마치 유럽의 오래된 카페에 온 것 같은 고풍스런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시간대마다 제공되는 메뉴가 다르고 브런치 메뉴는 오픈 시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주문할 수 있다. 김영모 과자점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니만큼 빵 맛은 말할 것도 없다. 김영모 과자점의 대표 메뉴인 몽블랑 빵 속에 라구 파스타와 트러플 크림 파스타를 채워 넣은 몽블랑 파스타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메뉴다.





한티역

겔끄쇼즈

하루에 7개만 한정 판매하는 바닐라 타르트 때문에 오픈 전부터 대기 줄이 생기는 겔끄쇼즈. 복숭아 샤를로트, 산딸기 이스파한 등 철마다 바뀌는 디저트가 기대되는 한편 언제나 쇼케이스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카롱은 겔끄쇼즈의 스테디셀러.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크게 만드는 일명 ‘똥카롱’이 유행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겔끄쇼즈의 마카롱은 질리지 않는다. 바삭한 꼬끄와 끈적한 필링이 만들어내는 식감과 로스티, 올리브 등 재료 본연의 맛이 한껏 살아 있어 작은 크기에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도곡로70길 5 ☞ 목·월요일 12:30-19:30 (화, 수요일 휴무)
 ☞ @quelquechose_seoul



역삼역

로젯런던베이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소한 베이글 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로젯런던베이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이글 맛집이다. 기본 베이글부터 시작해 트러플 베이글, 카야 버터 베이글, 치즈 올리브 베이글 등 다양한 베이글 종류가 있으며, 크림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베이글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커피, 에이드, 주스 등도 판매한다. 베이글이 나오는 시간은 오전 8시 30분과 오후 12시 이니 갓 구운 따끈따끈한 베이글을 먹고 싶다면 참고할 것.

☞ 테헤란로33길 20
 ☞ 0507-1470-5459
 ☞ 평일 08:30-22:00, 주말 10:00-16:00



흐비지떼



선정릉 뒤에 위치한 아주 작은 프랑스 디저트 전문점. 매장 규모는 작지만 빵띠 가또, 마카롱, 피낭시에나 마들렌 등 구움과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야무지게 갖춰 놓았다. 빵띠 가또의 종류는 수시로 달라지며 매장에서 먹으면 들어가는 재료나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바닐라타르트와 체리 바질이 인기가 많다. 디저트 전문점이라 음료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커피가 맛있어서 근처 직장인들은 커피만 사가지고 가기도 한다.

- ☐ 삼성로107길 34 1층
- ☎ 070-8899-0607
- ☎ 화-토요일 12:00-19:00 (일, 월요일 휴무)
- ☎ @revisite.patisserie



신사역 에뚜알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 딱 차는 좁은 실내에 마들렌, 피낭시에 등의 구움과자가 먹음직스럽게 쌓여있다.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고 워낙 매장이 좁아 매장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잦지만 줄은 금세 줄어든다. 플레인, 홍차, 글라세 말차, 소콜라 등 다양한 종류의 마들렌이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마들렌 레몬 글라세. 신맛은 그리 강하지 않으며 레몬의 기분 좋은 상큼함이 입안에 맴돈다. 13,000원 이상 구매하면 일러스트가 들어간 상자에 포장해주어 선물하기에도 좋다.

- ☐ 압구정로10길 35 지하1층
- ☎ 070-7627-0057
- ☎ 매일 12:30-21:00



SPECIAL

매봉역 카페거리에서의 시간

매봉역 카페거리를 걷다 보면 카페거리라는 이름답게 여러 다양한 카페들과 마주한다. 이른 점심시간이면 브런치 카페 안은 사람들로 하나둘 채워지며, 카페에서는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의 노천카페를 떠오르게 하는 이곳에서 혼자서도 좋고, 둘이서도 좋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매봉역

카페 비밀 (Cafe Be.Meal)



매봉역 카페거리에서 브런치 카페라면 단연 카페 비밀이다. 비밀은 ‘한 끼의 식사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만 지역 주민에게 유독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 대표 메뉴는 에그 스크램블과 트러플 크루아상. 특히 크루아상은 웬만한 빵집 못지않게 맛있다.

다른 브런치 카페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인 수비드 계란과 매콤한 짜장 떡볶이 역시 인기가 많다. 브런치 메뉴를 주문하면 병음료를 제외한 음료 메뉴를 할인해준다.



[A] 논현로26길 30-8 1층
 [T] 02-577-5180
 [H] 월-토요일 09:00-16:00
 (일요일 휴무)



매봉역

키퍼마켓 매봉점



유럽의 한 거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카페. 민트색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부로 들어서면 매대 위 가득한 디저트들이 반겨준다. 디저트 외 라떼, 에이즈, 주스 등 여러 음료 메뉴가 있으며 와인도 판매를 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어 직장인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라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500원 할인 되니 참고할 것.



- A** 논현로28길 56 1, 2층
- T** 0507-1415-9109
- H** 매일 09:00-21:30
- I** @keepers.market_official





 매봉역

브라이언스커피



들어가는 순간 커피 향과 디저트 향이 코를 자극하는 카페. 스콘, 파운드케이크, 쿠키, 휘낭시에, 크루아상 등 맛있는 디저트로도 인기가 많지만, 이곳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커피 때문. 뛰어난 커피 맛으로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먹길 추천한다. 내부는 1, 2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식물이 곳곳에 있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 제품에 사용한 버터, 크림 등 직접 구매 가능하다.



-  A 논현로26길 46 1, 2층
-  T 02-529-6399
-  H 매일 09:00-22:00
-  U brianscoffee.com



룸서비스301



3층 1호에 있어 룸서비스301인 카페. 룸서비스라는 이름답게 스페셜티 등급의 원두만을 사용해 최상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이다. 핸드드립 커피, 말차음료, 청포도 에이드, 유기농 허브티 등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눈을 사로잡는 예쁜 디저트도 많으니 함께 먹어보자. 내부 공간 외에 루프탑도 있어 날이 좋을 때 야외에서 먹어도 좋다. 여름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 초록한 나무 뷰가 아름다워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양재천로 193 301호

☞ 화-일요일 11:30-22:00 (월요일 휴무)

☞ @roomservice301





 매봉역

비플레이트 바이 브라운브레드

2009년부터 사람들에게 빵과 샌드위치를 꾸준히 판매한 비플레이트 바이 브라운브레드. 브라운브레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빵과 관련한 다양한 메뉴가 있다. 한 끼 든든하게 채워 줄 샌드위치부터 크루아상, 브레첼, 빵오쇼콜라 등 메뉴도 다양하고 모든 빵이 맛있어 빵 맛집으로 유명하다. 음료도 함께 판매하니 이곳에서 간단한 한 끼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 [A] 논현로24길 41
- [T] 070-8658-1236
- [H] 월-토요일 08:30-18:00 (일요일 휴무)
- [I] @bplate_by_brownbread

매봉역

풀몬티



화이트와 블랙 외관으로 세련된 인상을 주는 브런치 카페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브런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아침 식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계란과 베이컨, 영국식 소시지, 베이컨 빈, 구운 토마토, 요크셔푸딩, 어글리 포테이토 등으로 구성된 영국식 아침 식사는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수프, 샐러드, 스튜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커피, 맥주, 와인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영국의 브런치 문화를 느껴보길 바란다.

☞ 논현로24길 18 ☎ 0507-1330-4531

☎ 평일 09:30-23:00 주말 09:00-23:00

☎ @fullmonty.seoul



매봉역

시트롱



큰 레몬같이 생긴 과일을 뜻하는 citron. 그 뜻에 맞게 과일을 활용한 베이커리와 브런치 메뉴가 다양하게 있다. 모든 메뉴를 직접 만들며,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메뉴로 단골을 계속해서 만드는 곳이다. 베이커리 메뉴뿐만 아니라 빙수도 이곳의 인기 메뉴. 특히 국산애플망고빙수는 이곳을 오면 꼭 먹어봐야 할 디저트이다. 시즌에 맞게, 재료 공급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니 계절별로 방문해 보는 것도 재미.

☞ 논현로26길 56

☎ 0507-1338-3998

☎ 화-일요일 10:00-19:00 (월요일 휴무)

☎ @cafe.citron

Brunch

여유로운 하루의 시작, 브런치

느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주저 없이 브런치에 나서자.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서도 숨 쉬어지는 건 향기로운 커피와 고소한 빵, 그리고 싱그러운 샐러드와 달콤쌉싸름한 디저트가 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을 담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로데오역

메종 사우스케이프



도산공원 인근에 자리 잡은 메종 사우스케이프. 남해 청정 지역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선보인다. 샐러드부터 샌드위치,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등 여러 메뉴가 있으며, 오마카세 스타일의 디너 코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 [A] 도산대로45길 17
- [T] 02-6205-6701
- [H] 매일 11:00-20:00
- [I] @southcape_maison





 압구정로데오역

애니오케이션 청담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리틀넥, 노트드 도넛, 워셔너리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GFFG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브런치 카페이자 그로서리. 대표 메뉴는 각종 베이글. 매장이 넓은 편이 아니라 주말엔 이른 아침부터 기다려야 할 때도 많다. ‘애니 베이글 세트’를 시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수제 토마토잼, 당근 라페 샐러드가 함께 나온다. 같은 건물 지하 2층에는 와인바인 애니오케이션 B2 베이스먼트가 있다.

A 도산대로51길 14 1층 **T** 0507-1435-1470

H 화-일요일 09:00-21:00 (월요일 휴무)

I @anyoccasion.official





 압구정로데오역

뉴욕라츠오베이글스



대나무밭을 따라 들어가면 뉴욕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글 맛집. 미국 뉴욕 아스토리아 지역의 베이글로 유명한 뉴욕라츠오베이글스를 압구정에서도 만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인 수제 핸드롤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베이글로 유명한 이곳은 다양한 베이글을 맛볼 수 있어 오전부터 간단한 한 끼를 먹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크림치즈 또한 여러 가지 맛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라보자.



A 압구정로48길 28 **T** 02-3448-7777

H 평일 08:30-20:00, 주말 08:00-20:00

I @newyorklotsobagels



미드타운



회색 건물 꼭대기에 미드타운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는 가로수길에서 단연 눈에 띈다. 미드타운은 낮에는 브런치 카페이면서 밤에는 와인, 칵테일,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한쪽 구석엔 디제이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다. 클래식한 에그 베네딕트부터 샐러드, 팬케이크, 샌드위치, 파스타 등 메뉴 종류가 많은 편이다. 야외 테이블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 도산대로11길 40 ☎ 02-540-5240

☞ 월-목요일 10:30-23:00 금요일 10:30-01:00

토요일 10:00-01:00 일요일 10:00-23:00

☞ @midtownseoul



 압구정역

리마크스



넓은 실내와 따뜻한 갈색조의 인테리어가 차분하고 여유롭다. 이 근처에서는 드물게 아침 일찍부터 영업하는 것도 장점. 대표 메뉴는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식빵 사이에 체다 치즈와 잠봉을 넣고 튀겨낸 샌드위치를 함께 나오는 산딸기 잼에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단짠단짠’의 교과서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 [A] 언주로168길 6 1층 [T] 02-6925-3129
- [H] 월-토요일 08:30-24:00, 일요일 08:30-18:00
- [I] @remarks_restaurant



 신사역

노이에 아트멍



과거엔 단독 주택이었을 것 같은 건물이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넓진 않지만 1, 2층에 각각 테라스가 있고 실내도 여유로운 편. 영업시간 내내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한 브런치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샐러드, 팬케이크, 파스타 등 무얼 시켜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고기가 듬뿍 들어가고 로제소스로 버무린 현미 뇨끼는 노이에 아트멍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 매장에서 직접 굽는 당근 케이크와 애플파이 등 디저트도 인기가 많다.

- [A] 도산대로23길 19
- [T] 070-8834-5444
- [H] 화-토요일 10:30-22:00, 일요일 10:30-21:00 (월요일 휴무)
- [I] @neue_atmung



신논현역

라브리크 서울



‘Light but not light’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즐거움을 뜻하는 라브리크. 따뜻한 감성의 주택 외관이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내부에서는 음료와 케이크를 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브런치를 맛보는 사람들도 많다. 머쉬룸 에그 샌드위치, 치즈 오믈렛, 라브리크 에그 모닝밀, 라브리크 버터밀 등 종류가 다양하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시켜보길 바란다. 테라스에서는 반려견 동반도 가능해 반려견과 함께 브런치를 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보자.

- ☐ 봉은사로18길 66
- ☎ 0507-1388-9203
- 🕒 매일 10:00-22:00
- 📱 @labrick_official



양재역

홍팍집 양재점



100% 국내산 팥을 고집하는 홍팍집은 달지 않으면서도 팔의 고소함과 담백함을 안심하고 맘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팥의 색을 닦은 안락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도 홍팍집 인기에 한 몫 더한다. 팥을 기조로 하기에 팥죽은 물론, 팥빙수, 단팥빵이 주를 이루고 입구에서는 봉어빵이 구워지고 있다. 팥빙수와 봉어빵의 조우! 이 얼마나 완벽한 조합인가. 최근 유행인 할매니얼(할매+밀레니얼)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다. 팥빙수에 올려지는 팥은 오랜 시간 강한 불에 졸여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한다. 가마솥에서 퍼져 나오는 흰 연기와 구수한 팥 냄새가 시골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 ☐ 남부순환로359길 31
- ☎ 02-572-6577
- 🕒 매일 11:00-21:00
- 📱 @hongpotzip_yangjae



K-food 한국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맛!

최근 압구정로데오의 핫키워드인 '전통주'다. 전통적인 맛과 트렌디한 분위기, 이 두 가지 협주가 눈에 띈다. 전통주에 어울리는 파전, 전골, 보쌈 등 한국적인 음식들이 덩달아 트렌디한 입맛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강하고 에너지틱한 맛들을 즐겨보자.

 신논현역

무월식탁



정갈한 한식 1인 밥상을 차려주는 곳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혼밥도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함이 특징이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식탁'을 차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건강한 밥, 짜지 않은 국, 각각의 정성 가득 담긴 찬들을 내어준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 젊은 층의 취향도 고려한 적절한 믹스매치가 돋보인다. 1인 밥상에 밥과 국, 찬들이 각각 담겨 나와 덜어 먹는 수고로움도 덜어준다. 부모님을 모셔가도 좋고 연인과 단둘이, 친구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A] 강남대로102길 23 [T] 02-552-9280

[H] 매일 11:00-22:00



 압구정로데오역

뱃고동



30년이 넘는 압구정 로데오에 자리한 산낙지불고기, 오징어, 낙지불고기백반 맛집. 오랜 시간에 가더라도 만석일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행객에게도 사랑받는 식당이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돌판에 국물이 없는 통통한 낙지가 들어간 산낙지불고기, 오징어 전골백반과 낙지전골백반. 갖은 신선한 야채와 오징어, 낙지 등의 재료가 들어간 메뉴는 매콤하면서도 입맛을 돋운다. 다 먹은 후 볶음밥은 필수! 이 외에도 전골, 파전, 빈대떡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오징어튀김은 뱃고동의 또 다른 별미이다.

[A] 언주로172길 54 [T] 0507-1413-8008

[H] 평일 11:30-22:00, 주말 12:00-22:00





느린마을양조장 압구정로데오점

국내 최초 도심 속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매장에 양조장을 들여와 그곳에서 직접 빚은 막걸리를 판매한다. 느린마을 막걸리는 숙성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총 4단계의 맛 중에서 취향껏 골라 마실 수 있다. 4가지 맛은 사계절에 비유되는 데, 봄처럼 신선하고 가벼운 탄산미, 여름처럼 상큼하고 풍부한 탄산미, 가을처럼 짙은 부드러운 신맛, 겨울처럼 짙은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로 나뉜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목직함 맛이 난다. 마치 인생과도 같이. 인공감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쌀과 누룩과 물로만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막걸리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A 선릉로155길 13, 2층 T 02-544-9402
 H 일-수요일 17:00-24:00, 목-토요일 17:00-02:00
 I @slowbrew-pub



백곰막걸리

전통주 전도사 백곰막걸리가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곰막걸리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우리 술 300여 종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하안색 2층집을 개조해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120평 규모의 널찍한 매장뿐만 아니라, 개방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도 한잔할 수 있도록 한 공간 구성도 매력적이다. 인기의 또 다른 비결은 제철 재료를 이용한 맛있는 음식들이다. 동해안 오징어 등뽕뽕 김치전, 부산 달고기 소금구이, 제주 돌문어 숙회 등 지역성이 강한 음식을 술과 어울리게 조리해 낸다. 전통주를 마시는 것이 꽤나 고급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 A 압구정로48길 39 1-2층
 T 0507-1377-7644
 H 화-목요일 17:30-23:30, 금-토요일 17:30-01:00 (일, 월요일 휴무)



신사역

춘식당



‘봄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춘식당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한 엄마표 집밥으로 유명한 한식 전문점이다. 식당 경력 30년 엄마 손맛과 패션업계에 10여 년간 몸담았던 아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져 개성이 넘친다. 반듯하게 자리 잡은 2층 양옥 주택은 겉으로 보기엔 한식당인지 서양식 레스토랑인지 구분이 가지 않지만 제대로 된 한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기본 한식에 이국적인 요소를 조금씩 가미해 춘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인다는 점도 인기의 이유다.

☞ 도산대로23길 17 ☎ 02-511-4022

☎ 월-토요일 18:00-02:00, 일요일 17:30-24:00

압구정로데오역



최가네 버섯샤브 매운탕 칼국수

‘십 리를 걸어오셔도 가실 땐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시선을 끄는 샤브샤브 칼국수 맛집. 이곳의 주메뉴는 가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샤브샤브와 버섯매운탕칼국수. 칼칼하고 얼큰한 맛으로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 찾는다. 평일에는 오후 2시까지 샤브런치 메뉴도 있으니 점심에 방문한다면 샤브런치를 추천한다. 이외에도 바삭 불고기, 물만두 등 샤브샤브와 곁들여 먹을 메뉴들도 있으니 참고하자.

☞ 도산대로51길 36 2층, 3층 ☎ 02-547-7676

☎ 매일 11:00-21:40 ☎ @choigane_shabu



연주역

논현손칼국수



겉쫀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강남을 대표하는 손칼국수와 수제비 전문점이다. 쫄깃한 수제비와 칼국수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칼제비까지 총 3가지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취향껏 청양고추 양념장을 더해 칼칼한 맛을 가미할 수 있다. 논현손칼국수의 인기 비결은 수제비와 칼국수 사리가 무제한으로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 강남 한복판에서의 넉넉한 인심을 경험해 보길. 6월부터 맛볼 수 있는 계절 메뉴인 시원한 콩국수도 일품이다.

☞ 논현로111길 16

☎ 02-517-6030

☎ 월-금요일 09:30-20:00, 토요일 09:30-15:00 (일요일 휴무)





압구정로데오역



더기와 압구정본점

더기와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모던함을 두루 갖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한식 주점이다. 입구 벽면 전체에 기왓장을 켜켜이 쌓아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은은한 조명은 호롱 불이 주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앞마당에 테이블이 펼쳐져 더기와와 분위기기가 더욱 고조된다. 주점답게 각종 전, 수육과 보쌈김치, 두부제육김치 등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가 주를 이룬다. 막걸리 외에도 맥주, 소주, 하이볼 등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다. 점심에도 보쌈정식, 꼬막비빔밥, 보쌈비빔국수 등 한상차림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 [A] 선릉로155길 15 [T] 02-512-2701
- [H] 평일 11:30-02:00 주말 11:30-03:00
- [I] @the_giwa_official

강남역



떡도리탕

한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곳이다. 떡도리탕은 닭도리탕과 떡볶이가 합쳐진 메뉴로 양념이 적절히 배인 닭과 쫄깃한 떡이 푸짐해 가성비가 좋다. 끓기 시작하고 5분 정도 후에 떡부터 시작한다. 닭도리탕에 떡을 넣는다는 생각은 누가 했을까? 쫄깃쫄깃한 이 떡은 떡볶이의 맛과는 또 다른 맛이다. 익힌 콩나물이 함께 나오는데 잘 졸인 국물에 찍어 먹으면 아삭한 콩나물에 국물이 배어 이 또한 별미다. 꼭 익힌 감자는 또 어떤가? 국물과 함께 밥에 넣어 속속 비벼 먹으면 공기밥 한 그릇은 뚝딱이다. 떡, 라면사리는 추가할 수 있고, 볶음밥은 선택 아닌 필수. 감자전과의 조합 또한 말이 필요 없다.



- [A] 테헤란로1길 28-9
- [T] 02-501-2940
- [H] 월-토요일 11:30-22:30
일요일 11:30-22:00



Michelin 별들의 전쟁, 미쉐린 레스토랑

2023년 서울에서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1개 이상 받은 음식점은 35군데. 그중 절반 이상이 강남에 위치해 있다.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음식점’과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음식점’, 그리고 ‘요리가 매우 훌륭한 음식점’까지 모두 모여 있는 강남. 과연 ‘별들의 전쟁’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다.



©스와니에

압구정로데오역

정식당



뉴욕에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 정식(Jungsik)을 오픈하고 2년 만에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선정이라는 개가를 올린 임정식 셰프의 레스토랑 정식당. 전통 한식의 재료를 획기적으로 재탄생시킨 뉴코리안(New Korean)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임정식 셰프답게 낯설면서도 친숙한 한식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런치와 디너 코스 외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정식당 1층에 있는 정식 카페에서는 정식당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장독대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신사동에 위치한 호텔 안테룸 서울 내부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 아이뽀유도 함께 운영 중이다.

신사역

스와니에



우리나라 최초의 팝업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알린 이준 셰프의 첫 번째 레스토랑. 2013년 12월 24일에 문을 연 스와니에는 ‘완성도가 높은’, ‘잘 만들어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이자 이준 셰프의 유학 시절 별명 이었던 Soigné Lee를 통해 이름이 지어졌다. 전 세계 음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요리를 선보이지만 기본 바탕은 한국적인 것이 특징. 바 형태의 좌석에 앉아 셰프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매력이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메뉴를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각 에피소드에 맞는 와인 페어링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

- ☐ 선릉로158길 11
- ☎ 02-517-4654
- 🕒 매일 12: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7:30)
- 🌐 jungsik.kr
- 📱 @jungsik_inc



©정식당



- ☐ 강남대로 652 신사스퀘어 2층
- ☎ 02-3477-9386
- 🕒 화-일 12:00-22:00 (브레이크타임 15:00-18:00, 월요일 휴무)
- 🌐 soignerestaurantgroup.com/wp/soigneseoul/
- 📱 @soigneseoul





압구정로데오역

밍글스



밍글mingle은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밍글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장과 발효초에 서양 요리에 쓰일 법한 허브와 식재료를 더해 아시아 창작 요리를 선보이며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에 선정되었다. 전통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강민구 셰프의 감각적인 요리는 전 세계 각지의 와인과 전국팔도의 전통주와의 페어링도 남다르다. 모던한 분위기에 창너머에 펼쳐진 장독대 풍경 또한 '밍글'하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백이 가득해 요리의 깊은 맛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강남구청역

무오키



미국,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박무현 셰프의 무오키는 3년 연속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에 랭크되었다. 딱히 어느 나라 요리라고 특정 짓기 어렵지만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으며 셰프의 창의성이 한껏 녹아든 요리는 그저 무오키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시원하게 탁 트인 오픈 키친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 학동로55길 12-12, 2층
- 0507-1314-4171
- 월-토요일 12: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8:00, 일요일 휴무)
- muoki.kr
- @muoki.seoul



© 밍글스



- 도산대로67길 19, 2층
- 02-515-7306
- 화-토요일 12: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8:00, 일,월요일 휴무)
- restaurant-mingles.com
- @mingles_restaurant



© 무오키



Heritage

과거를 물어보세요.
오래가게



[A] 언주로 835 [T] 02-548-3030
[H] 월-토요일 11:30-22:00, 일요일·명절 연휴 11:30-21:0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U] sgdinehill.co.kr/samwon-garden [I] @sg_dinehill

압구정로데오역



뉴만두집

압구정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기기 7년 전인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뉴)만두집. 평양 출신의 고 한동숙 씨가 고향에서 먹던 만두국을 팔기 시작한 이래 현재 2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꽤나 두툽한 만두피 안에 다진 돼지고기, 숙주 두부, 파 등으로 만든 소가 넉넉히 들어 있다. 소고기 양지와 대파를 삶아 끓이는 맑은 육수는 담백하고 고소하다. 두껍게 지져낸 녹두전도 인기 메뉴.



‘강남구’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부터 강남구에는 누군가의 생계가 있었고 지금도 면면히 이어오는 이들이 있다. 강남구에서 몇십 년을 지내온 노포는 곧 강남구의 역사 자체를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다. 지금도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압구정역

삼원가든



‘전원 갈빗집’의 열풍을 몰고 온 음식점이 바로 1976년 압구정에 문을 연 삼원가든이다. 1,200평 규모, 발레 파킹 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직원 등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였던 삼원가든이 2022년 6월 리뉴얼 오픈했다. 인스타그램으로 오픈 소식을 알리자 삼원가든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든 수많은 이들이 반가움을 표시했다. 본관과 별관을 더해 약 600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다. 건물은 바뀌었을지언정 삼원 전통 양념갈비는 여전히 일품이다.



[A] 압구정로 338 [T] 02-544-3710
[H] 월-토요일 12:00-21:30 (브레이크 타임 15:30-16:30, 일요일 휴무)
[U] mandoojip.modoo.at

양재시민의숲역

원조닭한마리



원조닭한마리는 닭, 감자, 양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대신 마늘을 넣어 팔팔 끓여 낸 깔끔한 국물이 진국이다. 닭과 함께 푹 익힌 감자는 양파와 부추를 넣어 만든 특제 소스에 넣어 닭고기와 함께 찌어 먹으면 맛갈스럽고 개운한 맛에 수저를 놓지 못하게 된다. 매콤한 술안주가 생각날 때는 닭도리탕을 추천한다.

[A] 논현로10길 13 [T] 0507-1380-4422
[H] 매일 11:00-22:00 (브레이크 타임 15:00-16:30)

한일관 압구정점



1939년 종로 3가에서 시작해 2008년 압구정으로 이전 후 백년 노포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한일관. 입구에 붙은 서울미래유산과 백년가게 안내판, 수많은 유명인의 사인이 역사와 명성을 말해준다. 한일관의 불고기는 적당히 달콤한 양념에 자박한 국물, 젓가락만 대도 스크릭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운 등심, 다양한 채소가 잘 어우러진 '서울식 불고기'의 전형이며 불고기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가능한 한일관 점심 상차림을 시키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1인분의 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매일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 전통 갈비탕도 인기가 많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한일관의 특별한 점.

- [A] 압구정로38길 14 [T] 02-732-3735
- [H] 매일 11:30-21:30
- [U] hanilkwan.co.kr
- [I] @hanilkwan_official



신정



강남구 내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강남역 주변에서 1986년부터 영업을 해온 신정. 오리구이, 양갈비구이, 징기스칸 등 다양한 고기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는 국수전골.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얇게 저민 소고기 양지와 대파, 국수를 넣고 끓여낸다. 재료를 한 번 넣고 끓이는 게 사브사브 스타일의 징기스칸과의 차이점. 메인 요리와 밑반찬 모두 간이 세지 않고 건강한 맛. 매장이 넓고 룸이 많아 모임을 하기에 좋다.

- [A] 테헤란로8길 29 [T] 02-554-1033
- [H] 평일 11:30-22:30, 주말 11:30-21:30



만나분식



대치동 은마 아파트 지하상가의 만나분식은 대학 수험능력시험이 시행되기 3년 전인 1990년부터 영업을 해왔다. 국물 떡볶이,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 등 떡볶이의 다양한 변주 속에서도 잘 분지 않는 매끈한 밀떡으로 만든 떡볶이 맛은 30년 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떡을 튀겨 찹시에 담은 후 소스를 뿌려주는 스타일의 떡꼬치와 빵튀기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주는 빵 아이스크림은 만나분식만의 별미.



- [A] 삼성로 212 은마지하상가 A-63(20동 앞)
- [T] 02-557-7040
- [H] 매일 10:00-21:00 (매달 2, 4번째 일요일 휴무)

Vegetarian

햄버거도 비건이 되나요? 채식 음식점





어느덧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는 행위 그 이상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완전 채식주의자도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 통계(2022년 2월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에는 98군데의 채식 대응 음식점이 있고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요가 매트와 들고 채식 음식점에 들어서서 사람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신사역


핀치 브런치 바



가로수길의 소란함이 한풀 꺾이는 골목에 비건, 논비건, 그들의 반려동물까지 반갑게 맞아주는 핀치 브런치 바가 있다.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다양한 채소 중심의 요리를 만들고 배워 온 류제호 셰프가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비건이 아닌 사람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채식을 선보인다. 요리의 담음새가 아름답고 정갈해 눈이 먼저 행복하다. 하나의 요리에 들어가는 각각의 식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 있으며 입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음료까지 모든 메뉴가 비건이다.

 압구정로4길 19  0507-1390-0526

 수-토요일 11:30-22:00 일요일 11:00-17:00
(월, 화요일 휴무)

 @pinch_brunch_bar



스타일 비건 강남구청점



샐러드처럼 딱 봐도 채식인 음식이 있는가 하면 스타일 비건의 햄버거와 피자, 치킨, 밀크셰이크처럼 ‘이거 정말 채식이야?’ 하는 음식도 있다. 겉으로만 봐도 모든 메뉴가 비건이란 사실이 놀랍고 맛을 보면 평범한 육류나 유제품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 놀랍다. 비건 팔빙수 등 꾸준히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사용해 채식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매장 한쪽에서는 다양한 비건 식품을 판매한다.

- ☐ 선릉로135길 6
- ☎ 1800-2361
- ☎ 화-일요일 11:00-22:00
(월요일 휴무)
- ☐ @stylevegankr



플랜튜드



플랜튜드는 식물성을 뜻하는 ‘플랜트(plant)’와 태도를 뜻하는 ‘애티튜드(attitude)’의 합성어. 스테디 셀러인 두부면을 비롯하여 식물성 떡볶이, 식물성 불고기 철판 볶음밥 등 다양한 비건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비건 음식점이다. 모든 메뉴가 비건표준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풀무원에서 나온 냉동식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소박하고 자극적이지 않되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식을 선보인다.

- ☐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 지하 1층 I-111호
- ☎ 02-551-3933
- ☎ 매일 11:00-21:00





마히나 비건 테이블



언제쯤 비건이라는 주제와 친해질 수 있을까. 마히나 비건 테이블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모든 메뉴는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0%. 우유, 계란, 버터를 포함 동물성 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버거에 사용되는 번, 파스타 소스 모두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압구정 골목 고트머리 귀퉁이 건물 2층에 위치한 마히나 비건 테이블은 건강하고 맛있는 비건을 추구한다. 아티스트와의 다양한 콜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작품을 감상하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이곳의 버거는 비건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할 비주얼이다. 시각, 향기, 맛까지 비건을 넘어 기대 이상의, 아니 그냥 맛있는 버거다. 폭신 폭신한 번은 패티 없이 번만 먹어도 충분한 정도.

[A] 논현로175길 75 2층 [T] 0507-1371-5331

[H] 화-일요일 11:30-21:00 (월요일 휴무)



러빙핫 카페



세계적인 비건 음식 체인점인 러빙핫에서 운영하는 한국 본점. 육류, 어패류, 유제품,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100% 비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버거, 떡볶이 콩불구이, 된장찌개, 커플릿 등 식사 메뉴부터 시작해 음료,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등 디저트류도 비건으로 선보인다. 비건과 관련한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어 비건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문해서 맛보고 구경해 봐도 좋다.

[A] 개포로22길 35

[T] 02-576-2158

[H] 매일 11:00-21:00





음 이터리 앤 베이커리

‘음’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감탄사 ‘음(~)’과 나쁜 재료는 뺀 ‘음(-)’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런치, 디너 메뉴가 다르고 메뉴판에 비건, 글루텐 프리, 베지테리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다. 비건 메뉴든 아니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속이 편안하다. 식사 메뉴뿐 아니라 빵도 직접 굽고 역시나 비건, 글루텐 프리 빵을 맛볼 수 있다. 내추럴 와인과 유기농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 매장은 넓고 쾌적하며 키친 안 쪽으로는 바 좌석도 있다.

☐ 논현로28길 47 1층

☎ 0507-1328-9229

☎ 화-금요일 11:30-21:00,
브레이크 타임 14:00-17:30,
주말 11:00-21:00,
브레이크 타임 15:00-17:30
(월요일 휴무)

☎ @uumseoul



Bar 강남의 밤을 마시다

이젠 위스키도 숙성 연도와 생산지를 따져 마시는 시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하게 얼음을 다듬는 바텐더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압구정동과 청담동 중심으로 위스키 바가 모여 있으며 캐주얼한 분위기의 칵테일 바까지 더한다면 강남구 곳곳에서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다. 어떤 날은 우아하게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 어떤 날은 상쾌하고 시원하게 하이볼 한 잔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



 압구정역

사브서울



와이너리의 지하 창고를 연상시키는 동굴 통로를 통과하면 투명한 유리 바닥의 공간을 만나게 된다. 와인 입문자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상주하는 전문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해 주며 와인 랩에서는 직접 보틀을 확인하며 원하는 취향의 와인을 고를 수 있다. 비밀스러운 공간감을 맘껏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룸도 마련되어 있다. 사브서울은 국내 5대 와인 수입 유통사인 아영FBC가 운영하는 와인 바로, 특정 층에 국한되지 않는 와인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 온 만큼 사브서울에서는 믿을 수 있는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와인나라에서 와인을 구매하면 콜키지 요금은 프리. 대신 사브서울의 와인 한 병을 주문해야 한다.

[A] 논현로175길 6 B1 [T] 02-512-4939
 [H] 목-토요일 18:00-02:00, 월-수요일 18:00-24:00 (일요일 휴무)



르챔버



책장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의 스피크이지 바 (Speakeasy Bar). 계단을 내려오면 묵직한 책장이 먼저 등장한다. 이 책장이 르챔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책장에서 르챔버라고 쓰인 책을 누르면 마법의 문이 열린다. 열린 비밀의 공간 정면은 각양각색의 보틀이 벽을 가득 채우고, 그 앞으로 바 테이블이 놓여 있다. 메뉴판에서 시그니처 칵테일 각각의 플러이버, 재료,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르면 쉽다. 자신의 취향을 전하면 바텐더가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한다. 칵테일을 주문하며 각각의 퍼포먼스를 연출해 주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다. 만드는 과정도, 마시는 순간도, 그리고 마시고 난 후까지, 여운이 오래 남는 칵테일 바이다.

☞ 도산대로55길 42 지하 1층 ☎ 010-9903-3789

☞ 월-목요일 19:00-03:00, 금-토요일 19:00-04:00, 일요일 19:00-02:00



컴팩트레코드바



레코드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0여 년간 활동해 온 DJ가 디자이너로서의 경험도 함께 응축시킨 쇼룸이자 로컬 LP 바이다. 동네 아지트 같은 분위기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음악과 술이 있어 식사 후 가벼운 한잔하기 좋다. 이름 그대로 컴팩트한 9평 남짓한 작은 규모에 온너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전문 DJ가 들어주는 다양한 장르의 바이닐 레코드 음악과 함께 맥주, 위스키, 칵테일, 와인, 하이볼 등의 술을 즐길 수 있다. 정기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DJ들이 자신들의 레코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티셔츠, 모자, 가방 등 컴팩트 레코드 바의 제품들도 이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 도산대로25길 46 1층

☎ 010-2718-5866

☞ 월-토요일 19:00-02:00(일요일 휴무)



©청담나인

 청담역

청담나인



매일 다른 라인업의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이탈리아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식사와 함께 재즈 공연을 볼 수 있어 일상 속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공간이다. 재즈 라이브와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지하 2층이며, 9개의 프라이빗 룸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재즈 라이브 바에서는 Nine Course와 Chef's Special의 코스 요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연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라이브 공연을 즐기면서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일상의 어느 하루쯤 음악에 흠뻑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 [A] 삼성로 634 B1, B2
- [T] 02-2002-9800
- [H] 12:00-24:00 (2024년도 운영시간 변경될 예정)
- 공연 시간: 일-수요일 19:30-21:10 목-토요일 19:30-23:10



압구정로데오역

신사역

첼시스 하이볼



첼시스 하이볼에는 제빙기 등을 만드는 일본 기업 호시자키(Hoshizaki)와 산토리가 협업해 만든 하이볼 머신이 있다. 널리 알려진 산토리의 가쿠 하이볼부터 첼시스 하이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토마토 하이볼 등 시그니처 메뉴까지 수십 가지 종류의 하이볼이 준비되어 있어 골라 마시는 재미가 쏠쏠하다. 물론 위스키와 칵테일 등 다른 주류도 준비되어 있다. 안주 종류도 다양하며 피쉬 앤칩스와 나폴리탄이 특히 맛있다. 안주 양도 많은 편이라 식사 대신 먹어도 든든하다. 청담점, 가로수길점 두 군데 매장이 있으며 두 군데 모두 밝고 경쾌한 분위기.

청담점

△ 도산대로85길 14 1층 ☎ 0507-1496-1308

☎ 월-토요일 16:00-01:00 (일요일 휴무)

가로수길

△ 도산대로15길 47 1층 ☎ 0507-1307-1033

☎ 화-일요일 16:00-01:00 (월요일 휴무)









사타빌

경남
경남대학교

영양문화거리
영양사거리

영양공원
신사역
한양아파트

영양사거리



ZELL

949-2043

24

스킨

BURBERRY

50

직진우회차전

정당역

자유당영구
신호전차

우회차전

우회차전

LIVE 강남 vol.2

발행일 2023.12

발행처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글 및 사진 이지앤북스 편집부

디자인 및 인쇄 (주)피그마리온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도서는 강남구청의 협조 및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은 출판사의 편집 방향에 따랐음을 밝힙니다.

